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 | kdta@chollian.net
홈페이지 | www.kdta.or.kr

2004 1 | 2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지 아닌지,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창간 97호 2004년 01/02 일요일

창간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

목론이 이강선주, 김희정/펴낸날 2004년 1월 5일



지난 12월 13일 우리 회선
배원들이 함께 모여 송년
의 빔을 보냈습니다.
함께 웃는 빔은 모습만큼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여는 글-김명선 2

기획-보육교사회에 보내는 새해덕담 5

존경하는 보육교사님들께! / 최무미(회원)

희망을 여는 보육교사회 선생님들께 / 정의숙

하고 싶은 일을 하자 / 김원희

동료교사에게 덕담 한마디..... / 홍미숙

제가 선생님 사랑하는 건 다 알죠! / 안산어린이집 방과후반아이들

오래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인연을 만듭시다. / 이윤경

보육과 정책-2004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의견 / 이윤경 12

보육활동 15

처음 아기 맡기던 날 / 서지혜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강화와 지역사회연계-1.가족서비스 / 황미혜

좋은 그림책 소개-처음엔 무섭고 갈수록 재밌는 동책..... / 한혜정

어린이와 환경-여러분은 잘먹고 잘살고 계신가요? / 이기원 25

아이들과의 하루 28

아이들의 세상만들기-새터어린이집 아이들 이야기 / 김진숙

보육교사일기-씩씩이들은 권리 찾기 중... / 이경녀

주로미의 육아일기-상구의 자주독립, 새해엔..... / 주로미

만나고싶은사람 37

새내기인사-서울지부 김미정신입회원을 만나보았습니다. / 임정수

만나고 싶었습니다-평화를 빕니다. / 유효순

지부활동 42

경기지부 순회교육-궁중음식(?)과 차와 요가 / 전경숙

서울지부카페 오프라인모임-하늘공원 아이 좋아라 / 이보경, 박성희

광주지부-광주시보육조례제정연대회의 발대식 / 박말신

인천지부 송년회-새 밑에서... / 이경미

중앙활동 49

한일보육교류연수 일본연수기-일상의 즐거움, ... / 김진숙

04년 수련회준비팀-그날! 그 자리의 열기를 기획하다. / 이강선주

세상읽기-세상을 읽으려고 / 이신미 54

상담실 Q&A-"근로계약" 56

알림란·보육계풍향·소식과 소식 58

처음처럼, 용기와 열정을 안고 우리의 자리를 찾아나가자!

-새해엔 더욱 당당하고 쫓대 있는 보육교사로 성장해가길 바라며-

김명선 · 공동대표

2003년이 역사의 뒤안으로 스며들고 200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보다 생명 넘치며 밝고 기운찬 날들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보육교사라는 선택적 삶을 함께 하고있는 인연과 보육교사회를 자랑차게 지켜나가는 더 큰 운명적 인연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새해엔 참복이 많이 많이 깃들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은 나라 안팎으로 잠잠할 날이 없다시피 난리통에다 끝없는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 부시정권의 이슬람 길들이기 보복전쟁으로 전체 인류가 전쟁과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불안과 공포속으로 빠져들었고, 이라크의 가난한 사람들이 처참히 죽어나갔습니다.

안으로도 벼랑 끝에 내몰린 채 분노와 절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 농민들의 처절한 죽음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죽음 뒤로는 구린내 뿜뿜 나는 재계와 정계의 썩어빠진 권력게임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빠빠지게 일해 한국경제를 살찌워 온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는 한푼도 더 줄 돈 없다고 버티며 죽음으로 몰아 넣어간 자본가들이 한나라당에 알아서 갖다바치는 수준이 007작전을 방불케한 집선이었으니, 트럭 채 돈 상자를 전달했다느니.. 등등 억장을 막는 뉴스들을 보면 과간들도 아니었지요.

물론 이런 세상을 지켜보면서 답답하고 끔찍한 심정으로 분노가 일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보육교사로 살아가는 게 참 정직하고 아름다운 직업이라는 생각에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반드시 그렇게 마음놓을 처지가 아니란 걸 압니다.

지난해 보육계를 강타한 사건들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고 끔찍한 일들의 연속이었지요,

애초 유려했던 바대로 보육의 중요성과 사회적 역할확대 속에서 보육이 집중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그 동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봐주기로 어린이집 질 관리에 무감각했던 문제들이 뿔뿔히 터져 나온 해였습니다. 30명 정원에 90명 수용사건, 30인분 주문한 국에 물을 부어 90인분으로 늘여 아이들을 먹여왔던 문제, 인천의 24시간시설에서 이루어진 아동학대사건 등.. 어린이집 비리와 아이들의 인권문제들이 연일 불거지고 폭로되기 바빴습니다.

아이를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보육계 내에서 사레경쟁하듯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육을 시장의 상거래 장사개념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 보육제도 안에서 행세하며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슬프고 분노스런 일입니다.

지금의 보육현실 속에서 보육의 질 문제는 보육행정과 보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하고 스스로 개혁하고자하는 적극적 사고와 노력 없이는 해결해 내기 힘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주체들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육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과 변화의 요구를 옮겨 읽어내지 못하고 돈벌이의 확장쯤으로 생각하고있는 장사꾼 보육시설들에게 체통을 걸고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보육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겨워도 보육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눈빛이 우리의 심장과 양심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이들의 성장을 올곧게 지켜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워내고자 하는 깊고 절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를 뜨지 못하는 이유의 처음과 끝이자, 또 우리가 가진 밀천의 전부일 것입니다.

보육교사는 바로 이 아이들의 수호천사입니다. 그러나 가련한 마음과 희생으로 지켜주려는 눈물의 천사여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보육교사의 일방적 희생으로 유지해 가는 보육현장과 아이들의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보육의 주체로서 보육교사 스스로의 자주성을 지켜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보육교사의 모습은 아이들의 적극적 수호자로 당당한 보육의 주체로 우뚝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어야 합니다.

2004년 새해엔 얼치기 보육이 아니라 진짜 보육교사의 역할과 상을 만들어 가는 고민과 실천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자신의 힘으로 아이들과 보육을 살릴 수 있는 길과 우리가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는 우리의 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만일, 가다가 길을 잃었다면 다시 우리의 처음 자리를 돌아봅시다!

처음 보육을 시작했던 그 마음,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곳엔 봄 햇살처럼 꿈틀거리는 아이들과 보육에 대한 애정과 지향, 그리고 열정의 에너지가 묻혀있을 것입니다.

그 기운을 다시 캐내어 아이들의 적극적 옹호자로 뜨거운 양심과 실천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진짜 보육교사!

이것이 2004년의 화두가 되길 바랍니다.

01 보육시설장이 보육교사들에게 보내는 새해덕담

☐ 존경하는 보육교사님들께!

최루미 · 회원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나이로는 한 살을 더 먹구요.

늘 이맘 때쯤이면 '난 무얼했나?' 하는 자조적인 물음을 던져봅니다.

옷은 험렁한 운동복에, 머리는 질끈 동여 메고, 같은 말을 서너 번은 해야 하는 그래서 한 1년 보육교사를 하고 나면 누구나 목소리가 똑 같아지는 현실...

여기에 앞치마는 필수!

나이를 먹으면 반갑지 않은 뱃살과 욕심의 나이도 늘어납니다.

보육교사를 몇 년 하면 독립을 해야 하고, 원감이니 원장이니의 직함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이에 따라 시설의 규모나 차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욕심이 이 바닥에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능력의 부재에서 오는 눈가림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원장이니 원감이니의 직함은 보육교사 생활이 너무 어려워 명분도 있고 좀 나이에 맞는(?)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 부분 공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하기 보다는 본인을 위한 무리한 창업을 많이 하게 되고, 평교사로 오래 근무한 보육교사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한 보육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된 선생님들과 생활하면서 우리 시설과 다른 시설과의 차별성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 선생님들을 우선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좋은 점으로요.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 어린이집에서 자, 타가 공인하는 막 일꾼(?)입니다. 무엇이든 가리지 않죠. 하지만 딱 한 가지 자신 없는 일은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법인에서 보육교사로 발령을 낸다면..., 사직서를 써야겠죠?

제 푸념을 덕담으로 대신합니다. 보육교사님! 수고많으시고 정말 존경합니다!

02 보육시설 자모가 보육교사들에게 보내는 새해덕담

☞ 희망을 여는 보육교사회 선생님들께

정외숙 · 부산 해아해아어린이집 자모

올 한해도 어느해 보다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시민의 힘으로!

부산시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선생님들과 부모 그리고 시민이 이 땅의 새싹들을 위해 다함께 하나가 된 뜻 깊은 한해를 아쉽게 보냅니다. 일하는 엄마인 제게 가장 큰 은혜는 마음놓고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는 어린이집을 만난 일입니다. 작은 아이가 돌 되기 전부터 두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집은 아주 오래된 석류나무가 있는 작고 넓은 집입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나무를 껴안고, 겨울잠을 달게 자고 난 석류꽃을 깨우고, 그곳을 찾아오는 작은 새와 대화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숫자나 글이 아닌 새봄과 함께 찾아오는 첫 목련과 나비의 이름들을 먼저 배웁니다. 굵은 날이면 플라스틱 로봇이 아니고 방방마다 오색 천들을 휘휘 감고 선녀가 되고 왕자가 되기도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가지를 심고 나물을 무쳐서 맛있게 먹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참 고맙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환경은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연을 배우게 해주시고 내 아이가 아닌 자연의 아이로 길러주시는 보육교사회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의 보육 현실이 뜻 있는 선생님들의 헌신을 담보로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지역마다 애쓰고 있는 보육조례제정 운동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선생님들의 희생만이 아닌 좋은 교육환경에서 선생님들의 깊은 뜻과 희망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연의 심성을 배우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 부디 선생님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빌면서 복된 한해 맞으시길 빕니다.

소나무 숲에 내리는 비(슬비)와 슬기로운 호랑이(슬범)이 엄마 드림

03 보육교사가 동료들에게 보내는 새해덕담

☞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김원희 · 인천생협 예술어린이집 교사

오랜만에 산(관악산)길을 오르면서 길가에 누웠는지 앉았는지 모를 돌멩이 위에 진친 엉덩이를 들이 밀었다. 인가들에 의해 포장된 산길로 자동차들이 쉿쉿 오르내린다.

문득, 길 너머에 있는 저 나무에게 ?너는 행복하니?? 묻는다. ?행복하지.. 바람도 눈, 비도 느낄 수 있고, 산새들도 놀러오고...? 나무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중앙에서 내 이름을 찾는다. ?아 원고구나? 자리에 없는 척 잔머리를 굴려본다.

대답은 넋죽 해놓고..

오늘이 오기까지 입만 동동거렸다. 만나는 사람마다 ?덕담 한마디? 청해보면 하나로 모아졌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놀자?

글쎄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에 적당한 일거리에 만족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래야 자신도 주변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고, 시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자. 아무튼 성격대로 살게 마련...

게으름을 멀리하고 조금 힘들면, 나름대로 즐기자. 산을 찾든, 노래를 부르든, 술독에 몸을 담그든, 책임질 만큼만 행동하자.

☑ 동료교사에게 덕담 한마디...

홍미숙 · 대구지부 회원

오늘 아침 둘째 녀석이 용가를 한 바가지만큼
엄청 나게 배설을 하였다 ... ㅠ.ㅠ;
이불까지 몽땅 버릴 만큼 ... "어휴~"
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불빨래를 돌리고,
침대 커버를 새로 갈아야 할 것 같아 이불장을 열고 이불을 꺼내는 순간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한 일주일 전부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얼마나 불편했던지..
다시 휴대폰을 살려고 생각을 하였으나 돈이 아까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상하게 하였던 휴대폰이
장롱 속에 있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둘째의 용가로 인해 휴대폰을 찾게 되어
새삼 "새옹지마"라는 글귀가 생각나게 한 일이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도 웬지 아침부터 싸우는 아이, 다치는 녀석,
머리 끝까지 열 받게 말 안 듣는 아이 등등
이렇게 힘들게 하루를 마치면 그날의 아이들을 웬일인지 일찍 집에 가는 것이다.
또 어떤 날은 아이들의 결석이 많아 수업시간을 편하게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도 꼭 한 두 명이 귀가가 늦어져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인생살이 "새옹지마"라 하나 봅니다.

근래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일련의 어린이집에 대한 사건, 사고를 접하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우리 보육교사들을 믿고 어린이집에 자식을 보내는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봉사한다면
우리 2세들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더 나은 2004년을 위해 ...
대한민국 보육교사님들 파이팅!!~

04 아이들이 보육교사들에게 보내는 새해덕담

☑ 제가 선생님 사랑하는건 다 알죠!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 방과후반아이들

안녕하세요? 전 선생님의 제자인 성학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지요?
오늘요 제가 그네를 탔거든요. 그런데요, 손에 있는 끈을 같이 묶었는데 갑자기
뒤로 넘어져서 그걸 풀려고 애들이 수고 해주었어요. 그리고요, 저번에 우리끼
리 이기준 과 선생님이 팀을 하고 했는데 9대 0으로 했다가 우리팀인 웅준이가
골을 넣어서 이겼잖아요, 그리고요 선생님 요즘 화를 많이 내세 요.
축구를 하고 나서 힘들고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에 또 하시자고 했는데 왜 안 해
주세요? 다음 번에 꼭 해주세요.
성학 올림

선생님 저 해빈이에요. 선생님 저 아시죠
선생님 7살 때 재미있던 건요 게임이었어요 인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될거예요
이브가 되면 몸도 더 건강하세요.
선생님 일곱 살 때는 친구가 없었지만 1학년이 되니까 더 많아 졌어요 선생님 사
랑해요 선생님 7살 때 감사했어요. 선생님 크리스마스 이브 가되면 제가 선물을
그때 준거 보다 더 좋은 걸로 드릴게요
해빈 올림

부안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해리예요 7살 때 공원으로 소풍 갔을 때 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놀이기구 탈 때 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탈 때는 무서웠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타니까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도 같이 놀이동산 가서 같이 놀아요
안녕히 계세요
해리 올림

안녕하세요 저 형구예요. 조금만 있으면 2학년이 되요
친구들 키우니까 힘드시죠 선생님 건 강 하세요
형구 올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곱살 때 공부 많이 가르쳐 주셔서 고맙구요. 동화도 많이
드려줘서 고마워요. 그럼 좋은 겨울 보내십시오.

해림 올림

선생님 저 아릅이예요. 2학년 되가요.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애들 공부 잘 시키시고
잘 사세요. 크리스마스가되가요.

그럼 안녕히계세요

아름 올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잘 있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선생님 그런데 7살때 선생님이 가르쳐주셨던 노래를 제가 피
아노 학원에서 그 노래를 치고 있는데 그 노래가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 노래를 가르쳐 주실 때 너무 좋았어요.

오래되서 노래는 잊어버렸지만 졸업사진 보면 자구만 7살 때 생각이 나요. 선생
님 보고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혜주 올림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없는 동안 많이 슬프셨을 것 같네요. 제가 이
제 2학년이 되겠어요 2학년이 되면 잘 지낼게요.

이제는 추운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도 다 되가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행복하
게 지내요. 겨울방학이 되면 저를 보고 싶을 끼예요.

그때 배드민턴 칠 때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배드민턴 못 쳤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젠 쉬워요.

선생님이 다음에서 메일 (편지) 주소알켜 주시면 메일 써드릴게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장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요.
보내시면 또 답장 보내줄게요.

선생님이 많이 혼냈지만 우리 훌륭한 사람되기 위해서 인거 알아요.

나중에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테니깐 걱정하지 안아도 되세요.

저는 꿈이 많아요. 발레리나, 피아니스트, 여경, 화가예요. 앞으로도 더 잘 지내
고 2학년이 되도 아이들 잘 가르쳐 주시고 편하게 잘 지내세요. 선생님 마지막으
로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 사랑하는건 다 알죠! 선생님 사랑해요.

채현 올림

05 한국보육교사회가 보육교사들에게 보내는 새해덕담

☞ 오래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갑시다.

이윤경 ·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2004년입니다.

늘 그렇듯이 새해가 오면 1년동안 보살피던 아이들과의 헤어짐을 준비하기도 하
고, 새로운 아이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기도 하면서 사람의 인연에 새삼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 배가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무슨 인연
으로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엄마의 역할을 하며) 1년을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보육교사는 혈연이 아님에도 아름다운 사랑
이 넘치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생애 첫 존재입니다. 그 첫
인연이 어떤 기억으로 남는가에 따라 아이들은 사람을 신뢰할 수도, 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한 사람의 전 인생에서 그런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
다니 참으로 두렵고도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4년에는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즐겁고 오래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인연을 아
이들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또 아이들의 부모들과도 상호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된 인연을 만들어 가길 바랍
니다.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분들은 보육철학이 잘 맞고 보육교사가 항상 성장
할 수 있도록 자극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원장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동료 보육교사와는 때로는 서로 힘든 일을 털어놓고 위로를 주고받고, 때로는 건
강한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을 통해 현장 보육교사들이 힘을 얻
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교사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
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이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보육교사와 한국보육교사회가 더 자주, 더 신나게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04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의견

정리 · 한국보육교사회 정책위

매년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지침을 담아 보육사업안내를 발간하고 있다. 이 안내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으나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등을 기준으로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놓고 있다. 즉,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 보육사업안내에 나온 지침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뜻이다. 특히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근무시간, 휴가, 경력인정기준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서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 많다. 매년 일선 담당공무원과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매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한다. 이는 의견을 내는 주체의 입장에 따라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복지부는 개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여 최종안을 만들고 있다. 제출된 의견 중에는 법을 개정하거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한 항목도 있어 사실 의견을 내더라도 변경이 어려운 것도 많다. 본회는 그 동안 매년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보육사업안내에 대한 개정의견을 전달하였다.

정책위가 보육사업안내를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지침의 내용이 보육의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는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보육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특히 아이들과 보육

1) 예를 들어 방학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본회는 원칙으로 보육시설의 방학제 도입을 동의하지 않는데 이는 보육시설이 가지는 역할이 직장가정의 양립지원이며 이를 위해 보육시설은 모든 종류의 일하는 부모들의 조건을 고려하여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보육교사들도 휴가가 필요하며 이는 방학제의 도입이 아닌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추가인력지원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보육시설이 방학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서를 얻고 방학기간이더라도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본회의 견해는 여름휴가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보육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육교사의 근무조건개선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면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개정되어야 할 내용을 분류하고 개정의견을 제안하였다. 그 중에는 실제로 개정이 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때로는 보육교사의 이해와 부모나 아이들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 보육시설의 기본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이번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대한 개정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종일제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에서 매우 중요한 급·간식과 이를 준비하는 취사원 인력에 대한 문제, 보육교사들의 휴게 및 휴가 사용에 대한 본회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이 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의 특성상 실제로 지켜지기가 매우 어려운 조항이다. 따라서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육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보육교사들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는데 까지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

2004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의견서

제 목	현 행	개 정 의 건	개정사유 및 기대효과
1. 취사부 인건비 지원	지원없음	취사부 인건비 지원	영유아가 종일 생활하는 보육시설에서 급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특히 자격을 갖춘 취사부를 채용하고 영양과 위생을 고려한 급식을 해야 함. 현재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질 높은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취사부 배치기준	영유아 50인 이상 초과 때마다 1인씩 증원	영유아 30인 이상 초과 때마다 1인씩 증원	취사부 배치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질 높은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함.
3. 보육시설 외부 위탁 급식 금지	신규	보육시설의 급식은 외부 위탁 급식 금지하고 보육시설내에서 조리하여 급식제공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은 음식으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할 경우 위생, 안전 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종일보육을 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급식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항상 자기 일이 버거우니까 다른 핑계를 대지? 애 때문에 당신이 일을 못한다는 건 핑계일 뿐이야. 자꾸 도망가지 말고, 당신 일 해. 그렇지, 아이는 잠깐동안 나를 찾겠지만, 나에게 그 잠깐은 나를 이뤄가는 중요한 순간이잖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아이의 짐을 다시 꾸려서 주민이 엄마에게 맡기고 지하철역으로 뛰었다. 그 때 내 마음 속에는 지금껏 없던 오기가 솟아났다. 제 자식을 남에게 맡기고 일하러 가는데, 가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지. 내 아이가 힘든 만큼의 대가는 얻어와야지. 순간 내 주먹에는 힘이 들어갔다. 회의 시간에는 아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핸드폰을 켜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식사 같이 하지는 일행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뛰었다. 한 손에는 핸드폰을 쥔 채, 주민이 엄마, 아기가 힘들게 하지 않았나요? 한 30분이면 도착하겠는데.. 그러자, 주민이 엄마는 아이가 아주 잘 놀고 있으니 걱정말고 일 다 보고 오라고 한다. 마음이 턱 놓였다. 주민이네 집에 도착하니, 아기는 주민이 엄마 품에 안겨서 방긋거리고 있었다. 바로 이 기분이었구나.

몇 해 전, 내가 맡았던 은하수반, 별님반, 달님반 아이들을 저녁에 찾아가는 어머니들의 기분이 이랬겠구나. 나는 그 분들의 마음을 머리 속으로 상상할 수는 있었지만, 가슴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었다. 그런 나에게 고영미 선생님은, 나도 미스였을 때는 아이들을 나만큼 이해하는 교사가 어디 있을까 했는데, 자식 놓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겠더라. 그래서 아이들 실수에도 더 너그러워지더라하던 것이 생각났다. 그 말을 들을 때는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언제쯤 저 말을 이해할까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풀리고 나니 예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사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쉬웠다. 또, 내가 주민이 엄마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그득하듯이, 20대였던 내게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머리를 숙이며 고마워하던 할머니, 할아버님, 어머니, 아버지들의 진심을 이제야 온전히 알 것 같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는지 또 한번 느끼면서,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를 걸게 된다. 은하수반 때 수첩에다가 자투리 글이나 남기시곤 하셨던 부모님들. 생활 속에서 아이가 주는 작은 기쁨과 감동을 주절 주절 몇 장씩 쓰셨던 그 분들의 모습을 이제는 내가 닮고 싶다.



가족서비스

황미혜 · 명예회원

우리회는 2003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이하 '실무자 훈련')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발굴한 20개 시설의 포괄적 서비스 사례들을 실무자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우리네 아이들」 읽는 이들과도 공유하고자 내용별로 분류하여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이번 호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사례들을 담아보았다.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개략적 내용은 「우리네 아이들」 2003년도 3/4월호에 실린 "적극적인 보육, 열린 보육으로의 전진 - 포괄적 보육서비스"란 글에서 다루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되겠다.

비정한 부모들을 양산하는 사회

불쌍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최근 20대의 철부지 아버지가 6살, 5살 난 자신의 두 자녀를 한강에 던져 살해한 일이 있었다. 과거에 아동에게 일어난 최대의 학대는 길거리에 내버리거나 고아원에 맡기는 유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IMF 이후로 심심찮게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비속살해' 즉, 부모가 자녀의 의지를 무시한 채 동반 자살하거나 살해하는 일이 올 하반기에만 무려 23명의 어린이 희생자를 만들었다고 한다.²⁾

2) 2003년도 12월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거나 자녀와 동반자살한 사건을 모두 12건으로, 총 39명이 숨졌으며 이중 절반이 어린이라고 한다.

주요사건일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 7월 17일 인천-생활고 30대 주부, 세 자녀와 아파트서 투신 · 7월 31일 울산-주식실패 30대 주부, 두 자녀 살해하고 투신 · 9월 26일 전주-부도 30대, 아내, 세 자녀와 승용차에 불 질러 동반자살 · 10월 19일 서울-생활고 40대 가장, 희귀병 딸 산소호흡기 때 · 11월 4일 대전-사업실패 40대, 아내, 두 자녀 공기총으로 쏘아 · 12월 4일 시흥-경마 빚 40대 부부, 두 자녀와 함께 음독 · 12월 19일 서울-카드 빚 20대 남성, 두 자녀 한강에 던져 (자료출처:중앙일보 03. 12. 21)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인냥 여겨지는 잘못된 인식도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하는 사회이기에 발생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그러나 어찌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자녀양육의 짐을 사회가 조금만 덜어주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죽이는 고통이 이처럼 많이 생겨났을까.

가정을 끌어안은 보육서비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사업의 목적은 '영유아에 대해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의 기본원칙으로 '부모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있다.

호주 국립보육인가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Inc., NCAC)는 양질의 보육시설의 조건에 시설과 가족 양측이 동의한 명확한 철학과 목표를 가지며,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시설에서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가족들이 센터에 관여하도록 격려하고 직원과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서로의 보완적 역할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NCAC, 2001).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환경은 바로 가족(가정)이다. Pecora와 그의 동료들(1992)이 도식화한 '상황의 A-B-C 모델' (A-B-C model of the situation)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도 분명하게 보여준다(2003년도 3/4월호 「우리네 아이들」 참조).

현대가정이 갖는 스트레스와 위기는 이미 인정받고 있는 바이어서 굳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족해체와 가정폭력, 실업, 빈곤 등으로 발생하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을 반영하여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현대사회가 보육시설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보육시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뿐 아니라 아동의 가정까지도 끌어안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아동의 발달을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육현장에서의 가정지원 사례

보육시설에서 가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으로 넘어가면 대부분의 시설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다. 열악한 재정과 인력구

조, 그리고 이미 업무의 포화상태에 이른 현재의 근무조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미 보육시설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먼저 시작한 곳들이 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길은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소개하는 시설들은 국공립과 민간시설, 수도권과 지방권이 섞여 있다. 시설의 유형이나 지역적 특성이 가정을 지원하는 보육의 역할을 막는 걸림돌은 분명 아니라는 것을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전하고 싶다. 가정지원서비스에 관련된 사례들만을 추리는 과정에서 원 자료집에 담겨진 많은 내용들(문제의식, 과정, 결과 및 주의사항...)이 간략히 전달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 읽는 이들이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

가정(부모)을 지원하는 내용과 방법은 보육시설과 그 가정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 글에서는 간단히 가족참여서비스와 가족지지서비스, 가족보존서비스로 사례들을 나누었다.

1) 가족참여서비스

가족참여서비스는 말 그대로 보육활동에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참관수업이나 교육계획안 전달(보육계획 공유)을 비롯하여 가족이 지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평가하는 것 등이 속한다.

아이들세상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의 교육환경과 개별가정의 교육환경을 일치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먹거리환경과 놀이감, 놀이문화(텔레비전, 비디오 시청) 세 주제를 선정하여 부모(가정)협력작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격월로 진행되는 반별 부모회에서 위 주제들에 대한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부모회에서 합의된 행동방침에 따라 각 가정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먹거리환경은 건강먹거리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부모가 교육과 정보를 담당하였고 놀이감과 놀이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모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가족이 능동적으로 '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 제법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카페 개설이다. 해맑은 세상 어린이집과 포구나무 어린이집은 인터넷 카페에서 부모들과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며 보육시설과 가정과의 차이를 줄여가고 있다. 특히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 카페는 교사-부모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뿐 아니라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사안들을 함께 토론하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여러 일화들을 나누기도 하면서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유대감을 더욱 긴밀하게 만든다. 실제로 카페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힌 포구나무 어린이집은 졸업생 가정들도 꾸준히 카페에 들어오고 있으며, 한지공예나 구강진료, 아동인

권 관련 자료 번역 등을 부모들이 자원봉사로 직접 해주고 있기도 하다.

홈페이지의 경우 제작비용과 관리의 측면에서 무리가 있지만 카페는 비용부담 없이 카페 담당교사가 주기적으로 사진이나 자료를 올려주는 등의 관리업무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훨씬 편하다. 물론 컴퓨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카페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보완장치를 마련하거나 의사소통을 위한 별도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족지지서비스

가족지지서비스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그리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뜻한다.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또는 가정방문),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 문제행동 지도 등이며, 가족구성원의 구직상담도 경제적 결핍으로 아동이 겪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법으로서 포함된다.

새터어린이집의 한방 정기진료사례를 소개해보겠다. 이 시설의 자모들 대부분이 오랜 기간 봉제공장에서 일해온 이들이어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소화불량과 요통, 방광염 등의 질병이 있었다. 어린이집에서는 자모들의 건강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하여 정기적인 한방진료를 1년간 진행하였다. 우선 정기적 진료가 가능한 지역 인적자원 발굴과 월 1회 부모회의를 통한 간단한 한방교육 실시, 정기한방진료에 대한 부모요구조사, 교사내 역할분담(담당교사 선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주1회 저녁시간에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한 한방진료를 실시하였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새터어린이집은 보육하고 있는 아동의 가족력이나 육아환경 등에 대해서도 체크할 수가 있었으며, 어린이집에 상대적으로 발길이 적었던 자부들도 참여하면서 교사들과의 관계도 긴밀해지는 뜻밖의 효과도 얻었다.

잠재적인 시설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가능하다. 면일어린이집은 입소대기 가정에 자녀양육과 관련된 자료들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역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인지·신뢰도를 높이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장애아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들은 장애아의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나 모임을 마련하여 이들 부모들을 지지할 수 있다. 장애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면일어린이집과 갯골어린이집, 이웃사랑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부모모임, 장애아가족캠프나 장애아 부모만을 위한 캠프(아동캠프와 같은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진행)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이웃사랑어린이집의 사례처럼 자체 통합자모회가 성장하면서 인천통합교육부모회(통합지원센터)로 확대되는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에 취업알선이나 후원자 연결 등을 해줄 수도 있다. 안산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견학비 후원과 같이 단발성 소액 후원부터 정기적인 후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 이용 부모와 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 등의 후원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한편 사례를 발표하였던 많은 시설에서 지역 자활후견기관과 같은 시설과 연계하여 실직가정에 취업을 알선해주거나 구직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가정 환경이 나아지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갯골어린이집은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기본적인 청결문제조차 해결되지 않는 가정이 늘면서 어려운 가정에 밀반찬 지원과 아동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다. 면일어린이집 역시 자원봉사자가 일부 아동의 목욕을 맡아 해주고 있다.

3) 가족보존서비스

가족보존서비스란, 가족의 해체를 막고 가족이 유지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혼이나 별거,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를 지닌 위기가족에 대해 전문적 서비스를 의뢰해주거나 아동 외의 가족 구성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족보존서비스에 해당된다.

새롬어린이집은 알콜중독인 부모로부터 잦은 방임과 학대를 받아온 아동에 대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새롬어린이집은 우선 부천정신보건센터에 알콜중독 상태에 있는 아동의 부모를 의뢰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신고센터와 인근 24시간 보육시설가정을 연결해주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가족보존서비스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자로서 필요한 정보와 기관을 연결해주는 것이 적절하며, 다만 어린이집에서 대상 가족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담기관이나 치료기관, 다른 시설을 소개하는 것이 수용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가늠한 후 연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맺음말

수박 겉핥기 같은 느낌을 영 지을 수는 없지만 아쉬운 대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몇 어린이집의 실제 활동들을 통해 이야기해보았다.

사실 대단한 전문성이나 기술을 요하는 서비스들은 아니다. 그러나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의 부족 탓이다. 걸음으

로 옮기기 전에 목적지에 대한 확신과 정확한 방향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일인 듯하다.

설령 인식이 되어 있다 하여도 가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주어진 여건상 상당히 많은 제한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은 바로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차근차근 메꿔야 할 부분일 것이다. 지역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활동들은 앞으로 차차 다룰 것이다. 부디 이번에 소개한 짹짹한 사례들 속에서도 여러분의 시설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를 소망하며 글을 맺는다.

이 글에서 인용되고 있는 사례는 2003년 한국보육교사회에서 발간한 "보육시설의 사회 복지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 자료집과 추가자료 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kdta.or.kr→자료실→발간자료→기타



처음엔 무섭고 갈수록 재밌는 동떡 맛보세요

한혜정 · 부산지부 회원/부산지부그림책소모임



내가 이 책을 만난 것은 같이 일하고 있는 보라선생님이 보라반 아이들이랑 해운대로 서점 나들이를 다녀오면서 사와서 보게 되었다. 아이들이 서점에서 그 책을 보고 좋아하고 보라선생님이 봐서 그림도 좋고 재밌었어 사오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처음 그림책을 보았을 땐 조금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면서는 어린시절이 생각났다. 그 시절엔 거의가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고 우리집도 여러 세대가 살면서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공동화장실을 썼는데 화장실에 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빠질 것 같아 조심스레 발을 디디야 했고 밤엔 무서워서 언니나 엄마를 졸라서 같이 가거나 그것도 안되면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라도 안고 가야 덜 무서웠고 혼자라도 갈라치면 혹시라도 화장실 밑에서 손이 쑥 올라와 파란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할 것 같아 서둘러 나오곤 하던 내 어린적 기억들이 새록새록 났다. 이 책을 보는 동안은 늘 그 시절의 생각들과 같이 다녔던 것 같다.

책 내용은 준호가 화장실에서 똥을 누다 빠지면서 시작되는데 똥똥그림 장면에서는 똥들이 물결에 속이 거북해지기도 한다.

똥똥에 빠진 아이는 일찍 죽는다는 옛말에 할머니와 엄마는 서둘러 똥똥에 빠진 아이를 살려주는 액막이 떡인 동떡을 만들고 그것을 똥똥에 바친 후 온 마을 사람이랑 나눠 먹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림책 속에 나오는 똥똥은 무섭게 보이기도 하는데 동떡을 먹는 모습에선 귀엽고 정겹기까지 하다.

아이들이랑 책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처음엔 조금 무섭게 생각하고 긴장하더니 점점 보면서는 재밌어 한다. 특히 4살 여자아이 은영이는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책 내용은 다외워 혼자 책장을 넘겨가며 귀신 흉내도 내고 '똥-똥-, 똥-똥-' 하고 외치며 다니기도 한다.

지금은 수세식 화장실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조금은 낯선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똥똥을 빚어 이웃과 나누며 따스한 정과 복도 함께 나누고 똥똥에 빠진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기를 살려주는 복과 나눔의 잔치를 벌였던 옛 사람들의 지혜를 엿보는 좋은 간접경험이 될 것 같다.



여러분은 잘먹고 잘살고 계신가요?

이기원 · 평동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와 환경은 어린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입니다. 평동어린이집은 2002년부터 생활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유기농산물 식단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있으며, 풍족, 건포맛사지, 알몸재우기등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즐거움과 더불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언행일치'가 아닐까 싶다. 고백하건데 나의 반복되는 과오는 맞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그 말에 맞는 행동이나 생활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김없이 아이들은 내게 묻는다. "선생님, 그건 왜그래요?"

특히 평동어린이집에서 잘먹고 잘사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삶의 이중성이 도전받게 되었다. 나의 생활은 이러저러 편한 것만을 쫓아가는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교육과 실천을 해야 하는 일 그것도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일상적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아마도 그 일이 과제가 아닌 내 생활 전반임을 자연스레 깨닫는 그때가 바로 내가 잘먹고 잘살고 있는 시간이 될것이다.

요즘은 많은 어린이집에서 먹을거리에 대해 관심들이 많아져 생협, 한살림등 유기농 먹을거리를 부식으로 쓰고 가급적 인스턴트 음식을 안 먹이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식단과 영양제공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아이들의 식습관이 이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평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초기에는 그런 오류들을 거쳐서 간혹 식단이 단조롭다거나 우유를 안먹이는 이유, 그리고 무농약 유기농이 웬지 잘사는 사람들만 먹어야 한다는 편견이 부모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선생님들의 식습관과 지향이었다. 30년 넘게 먹어온 입맛과 확고한 미각, 그리고 싫어하는 음식이 대한 불타는 증오(?)가 아이들보다 더 확고하기에 어른들의 변화가 무엇보다 더 시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현실을 중심으로 건강의 전도사로 나선 지연선생님(어느 시설이나 주체가 명확해야 함)을 중심으로 2002년 하반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1단계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주 내용으로는 건강한 먹을거리, 풍욕, 민간요법 등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 다음단계는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인데 우선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영아 및 유아별 건강관리, 그리고 낮잠시간전 풍욕, 가급적 피부호흡을 위해 많이 입히지 않고 특히 잠을 잘 때는 발가벗고자기 등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단계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인데 우선은 전문가를 모시고 전체 부모교육을 실시하여(소혜순선생님/다움을 지키는 환경모임)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먹을거리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복습의 단계로 반별 간담회때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토론의 과정을 벌였다.

그후 나타난 변화로는 아이들 스스로가 건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더 나아가 음식의 감시자(?)로서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매주 나가는 야외나들이 때 도시락 반찬을 보면 변화를 실감하는데 우선 김치를 싸오는 자부심과 자연스러움이 자리를 잡았고 간혹 깜빡 잊고 햄이나 인스턴트를 싸오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또한 풍욕과 피부호흡을 위한 입을 거리에 대해 실천하면서 전에 비해 감기나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후유증과 한계 또한 있다.

평동가족 모두가 일심동체로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다 보니 특히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해 꼭 확인을 한 후 "엄마, 이건 생협 피자지?" "선생님, 저는 어제 생협과자 먹었다요."로 먹을거리 자체를 '생협'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TV나 언론매체에서의 아이들을 상대로 한 가공할 만한 상업광고는 평동의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최대의 적으로 동원 전에 차안에서 과자와 빵을 먹고 들어오거나 동원 후 더욱 과자에 집착하는 후유증도 있었다.

교사들의 경우 서서히 긴장감이 사라지자 간혹 빵이나 라면을 아이들 몰래 먹는 경우가 간혹 생기게 되고 특히 몸에 안 좋은 커피를 끊지 못해 아이들에게 "선생님, 뭐 마셔요? 커피는 몸에 안좋지요?"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행일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어떤 율동이나 미술활동이나, 현장학습보다도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 일상적 실천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건강에 관심있는 교사가 개인의 주장과 지향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교사와 함께 계획을 짜고 나누고, 그 힘이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가정에서의

실천으로 한땀 한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집으로 수놓아졌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잘먹고 잘사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기에 2004년 계획을 통해 함께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2004년 1월중으로 평동어린이집 5년 교육활동 자료집이 발간됩니다. 그 중에 건강 활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정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터어린이집 아이들 이야기

김진숙 · 서울지부회원

밥풀들아~

점심을 먹는데 가을길이가 동영이가 반찬을 자꾸 건드렸다.

동영이가 화가 나서 가을길 식판을 엮어버렸다.

그러자 가을길이가 상위에 쏟아져 흩어진 밥알들을 숟가락으로 긁으며...

(애절한 목소리로) "밥풀들아~ 이리와"

힘들어!

날이 따뜻해 바깥나들이를 갔어요.

동네 한바퀴 돌아오다 동영이와 승민이가 제자리에 서서 건지 않는 거예요.

미자 선생님 : 달리기하자. 준비 땅! 힘내라!! 힘내라!!

(구령처럼 붙이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동영 : 힘들어!! 힘들어!!

(동영이도 구령처럼 하며 달렸어요)

똑같은 물?

아침밥을 먹고 가을길, 건, 성주가 죽염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밥을 먹고 있던 승민이가 나왔다.

승민 : 나도 죽염물 -

교사 : 승민이도 밥 먹고 와요~ 그럼 죽염물 줄게~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린 승민이. 친구들 앞에 꾸구려 앉아서

승민 : 건이야 무슨 물이야?

건 : 죽염물이야.

승민 : 가을아, 무슨 물이야?

가을길 : 이거, 그냥 물이야. 똑같은 물이야.

바람난 가족

부모회로 영화보기 전날의 일

남편이랑 영화 '바람난 가족' 보러간다고 이야기를 한 뒤 삼분쯤 뒤,

그때까지 혼자서 놀던 동하가 뜬금없이

동하 : 우리도 바람난 가족이잖아.

엄마 : 왜?

동하 : 우리도 맨날 바람피러 가잖아.

엄마아빠 : 푸하하. 맞아 우리도 바람난 가족이네.

호랑이 장가가는 날

아이들과 마당에서 바깥놀이를 하고 있는데...

해는 있는데 비가 왔다.

교사 : 애들아! 호랑이가 장가 가나봐.

아이들 : 비, 그쳐 주고 가야지~

안그러면 발로 찬다~

너! 꼬집는다!

맛 알려주는 확실한 방법

요즘 아이들이 감기 기운도 있고 해서 죽염을 하루에 한두 번씩 먹고 있어요.

죽염먹자 하면 울던 아이도 그치고, 놀던 것도 멈추고 모여들지요.

어제도 죽염을 먹은 승민이가 내게 오더니

'짜요' 하는 거예요.

'짜니? 선생님은 안 먹어서 모르겠다' 하니

갑자기 쪽 뽀뽀를 하는 거 있죠. 그러더니 하는 말.

'정말 짜지요!'

단단한 마음, 단단한 머리

탁자에 동하가 올라가서 규녕이를 못 올라오게 했다.

규녕 : 왜 나 못 올라가게 해!

동하 : 그냥. 내 마음이야!

규녕 : (잠시 슬픈 듯이 쳐다보며) 나도 내 마음 알아.

동하 : 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아니?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데!

내 마음은 단단해서 풀기 힘들어!

건 : 내 머리도 단단한데. 단단해서 풀기 힘들어~!

동하, 규녕 : 누나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마!

그러다가 동하랑 규녕이랑 그냥 화해가 되어 놀았답니다.

씩씩이들은 권리 찾기 중...

이경녀 · 서울지부회원

하나.

점심을 마치고 아이들과 비디오를 보는 시간.

일찍 점심을 끝낸 회수, 종현이, 승우, 현성이는 큰피반방에 들어와 비디오를 보잔다. 어떤 비디오를 볼지 결정하는데 다수결로하기로 했다. 요즘 우리 아이들과 무엇을 같이 결정할 때 여러 방법을 쓰지만 대부분은 다수결의 방법을 아이들이 원한다.

종현이는 '둘리'를 보자고 제안했고 회수는 '알라딘'을 보자며 의견이 갈렸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그 사이 두어 명이 점심을 마치고 비디오 표결(?)에 합류했다.

4명의 아이들은 '둘리'에 찬성하고 회수와 다른 한 아이만 '알라딘'을 보자고 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둘리'로 결정된 것이다.

그 때, 회수는 아이들이 모두 모이지 않았으며 이의(?)를 제기하더니 다른 아이들이 조잘거리며 밥을 먹고 있는 거실로 나가 다른 아이들에게 일일이 묻고 다녔다.

"야, 너 알라딘 볼거야? 둘리 볼거야?"

그러더니 알라딘을 보겠다는 아이들에게 "밥 빨리 먹고 알라딘에 손들면 그거 볼 수 있어. 밥 빨리 먹어." 한다.

그 얘기에 다른 아이들은 우우 밥을 먹고 후다닥 이뒀기를 마치고 교사들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먹여주기 보다 회수의 그 한마디는 식사시간을 빨리 마치는데, 그리고 자발적으로 밥을 먹게 하는데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그 사이에 회수는

"다른 애들은 알라딘 본대요. 이모! 잠깐 기다려요."

나는 이 소동에 넋을 놓고 비디오를 켜지도 못하고 있고 둘리를 보기로 한 4명의 아이들도 분위기에 휘말려 나에게 비디오를 틀어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기를 몇 분, 아이들은 득달같이 모여들었고 다시 표결하니 압도적으로 알라딘이 우세했다. 둘리를 보기로 한 아이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니 개네들도 양보한다.

드디어 비디오에서는 알라딘이 돌아가고 아이들은 승리에 찬 미소를 머금고 TV를 본다.

회수의 특이양양한 얼굴은 말 할 것도 없고.

그 뒤로도 몇 번 회수는 아이들을 선동(?)했다.

둘.

나는 내가 그러고 있는지 잘 몰랐다.

어느날부터인가 내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누군가 한 명은 "이모, 나는 안 그랬는데요?" 하고 자신에게 처해진 부당함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나는 "누가 너보고 한 얘기야? 00보고 한 얘기지." 라고 나도 짜증스럽게 항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여전히 나에게 "이모, 나는 안 그랬는데요?" 한다.

나는 '애들이 왜 이럴까? 뭘 피해의식이 있나? 싶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며칠 전에서야 알아 차렸다.

나는 아이들을 나무랄 때 집단으로 모아놓고 혼시하기를 즐겨(?)했으며 자유놀이 시간에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할 때에도 그 아이에게 직접 다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만 그 아이를 쳐다보며 이름도 안 부르고 그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절끔하지만 어김없이 다른 아이가 "이모, 나 안 그랬는데요?" 라고 항의하는 것.

물론 사실 중심으로 아이의 행동을 꾸짖거나 환기하는 것에 대해 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다만, 누군지 직접 가서 얘기하지 않아 마치 다른 아이들에게도 혼나는 기분 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또 한 두 아이의 실수나 잘못을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애들러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불쾌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집단 처벌을 받으면 무지 억울하고 그 시간이 지겨웠을 뿐이니...

그렇다고 이런 나의 습관이 금방 줄어들거나 하진 않았다.

다만, 최근 들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갈등을 아이들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나를 통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보니 "이모, 나는 안 그랬는데요?" 역시 원인제공은 내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알면 길이 조금씩 보이겠지.



나의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 괴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난 기쁘다.
우리 아이들이 마냥 어른이나 교사의 권위에 눌려 예전의 나처럼 아무소리 못하고 집
단으로 벌받고 혼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항변이 나를 또 깨워주는구나.

.....

푸념 한마디.

괴롭다.

애들 덕에 깨달음은 늘어가는데 몸은 여전히 말을 안 듣고 비인권적이지.....



상구의 자주독립

- 새해엔 평화가 함께 하길 -

주로미 · 명예회원

이야기 하나!

송이를 임신했을때 임신기간 내내 이상하리 만치 상구가 너무 예뻐다. 무슨 짓을 해
도 애쓸 필요 없이 절로 용서가 되고 그저 사랑스럽게만 보였다.

간혹, 부자가 되겠다며 동전하나라도 절대 쓰지 않아 나를 당혹케 하는 것만 빼면 모
든 것이 무사통과였다.

2002년 8월 11일 바람.

엄마 옆에 있다가 욕상에 있는 거미를 그렸단다. 생전 그림 그리는 걸 볼 수 없는 엄
마로선 상구가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다. 거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
찰한 내용도 있으니 참으로 신통하구나

상구가 대견스럽다. 엄마는 상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돼서 기쁘다. 엄마 등을 폭
치며 "엄마! 사랑해-" 하며 두손을 위로 모아 하트를 만든다. 엄마두- 사랑해.

이야기 둘!

그러던 것이 출산과 동시에 상구는 친정식구들 사이에서 말썽장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었다. 몸조리 기간 내내 상구는 여기저기서 혼났고, 사촌들 사이에서도 치이게 되
었다.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듯 했다. 몸조리한다고 방안에서 꼼짝없이 지내야했던
나는 상구의 변화에 속수무책이었다. 거기다 아빠의 부재가 상구를 더욱 방황하게 했
었다. 아직도 귀에 쟁하다.

"상구야!" "너! 그만하라 그랬지!" "상구! 나..."

상구... 상구... 상구... 하루종일 상구 부르는 소리다.

저 밖에서 상구는 어떻게 하고 있길래... 상구 소리는 들리지 않고

2002년 9월 15일 흐림

어젯밤엔 상구가 안 나누나 방에서 잠들었다.

엄마는 몸조리한다고 상구랑 전혀 놀아주기 못하고 아빠는 촬영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고

이모들은 바빠서 상구가 겪고 있는 마음고생까지 신경을 못쓰니 엄마가 상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상구야! 지금 얼마나 힘들고 마음 고생이 심한지 엄마는 알고 있단다. 어제는 밤에 자다가 일어나 엄마를 찾으려 울고, 바지에 똥까지 썼으니 엄마가 너를 재우고 밤에 다시 들어오니 잠이 오질 않더구나 조금만 우리 참고 이겨내자

속상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풀고 엄마에게 와서 풀고 가거라, 너무나도 소중한 상구! 힘내라!

이야기 셋!

상구에게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자 일곱 살의 반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예쁘기만 했던 상구가 그렇게 예치로워 가슴 아프게 했던 상구가 이제 욕이 입언저리 까지 나왔다. 삼키게 하는 상구가 되었다.

혼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큰 잘못도 아닌데 어느새 나도 상구에 대해서 참지 못하게 된 것이다.

2001년 5월 24일 흐리다

요즘 엄마는 상구와의 전쟁에 힘겨워하고 있단다. 어쩔 일방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와의 마찰을 엄마를 몹시 힘들게 하고 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듣는 듯 마는듯 참다참다 소리지르면 그제서야 팔을 들으니 이미 그때는 엄마가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 화는 더욱 불어나 있는 상태가 되고 만다.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엄마의 감정은 참을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지금도 저 아래서 소리지르고 있으니... 분명 송이를 깨울 심산이다.

그렇지! 송이가 잤다.

동훈이랑 같이 와서 논다는 걸 송이가 자고 있으니 동훈이네서 놀라고 했더니만 소리를 지른게 분명하다. 휴-매사 이런식이다. '미운일곱살'이라더니 왜 그런 말이 나왔

는지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미운짓말 골라서 하는 상고, 엄마의 한계를 알게 해주는 너가 너무 밍구나. 요즘 같아선 정말 못 살겠다.

이야기 넷!

한해가 저물어가니 점점 변화에 민감해진다. 상구와의 싸움이 한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는데 어느새 나는 계절에 지쳐있었다. 그러다 찬바람에 정신차려보니 내결에서 지지고 볶던 상구가 저만치 홀로 서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훌쩍 커버렸다. 엄마가 아니면 안될 줄 알았는데 엄마 없이도 해나가는 것이 하나 둘 늘어 나는데 보인다.

아빠 쫓아 하루에 15km 정도 걷는 차별철헤 걷기에 일주일 동안 갔다와서 두발이 물집 투성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나는 알았다. 상구가 그 방향의 첫 터널을 막 빠져 나왔음을...

내게서 너무 빨리 자주 독립해 버리게 아냐가 하며 서운해하는 건 나였다. 새해엔 평화가 함께 할 수 있을까?

2003년 12월 17일 매우쌀쌀하다.

엄마랑 은행 가자고 하니까 친구랑 놀테니 엄마 혼자 갔다오라고 해서 조금 놀랐단다. 어디든 쫓아다니던 상구가 엄마 보러 갔다오라고... 찻집. 이모 쫓아 이모집에서 두밤씩 자고 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니 엄마보다 발이 넓어 너 때문에 엄마가 사람들과 얼굴을 뜨게 되는 구나 여전히 엄마한테 혼나고 종아리도 맞지만 자신이 처한 입장과 상황을 정확히 표현을 하니 순간 엄마를 당황케 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게 한단다.

조금 전만 해도 엄마가 화를 내니,

"엄마! 엄마 말도 맞지만 내가 좀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화 좀 푸세요, 네!" 하고 말하니 엄마가 오히려 무색해진다.

요즘 들어서 엄마는 씹씹이에서 일했을 때 아이들의 엄마들이 많이 생각한다. 그 엄마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때 나는 그 엄마들한테 뭐라고 말했었지?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옹호하는 말을 했을 게 분명한데, 엄마는 우리 상구를 얼마나 이해했을까 생각하니 낮이 붉어지는 것 같구나

역시 12월은 사람을 반성하게 만든다.

이 반성이 끝나면 상구만큼 엄마도 훌쩍 커져 있을까?



엄마의 자주독립을 일깨워준 너의 자주독립에 박수를 보내고 싶구나! 새해에도 가열차게 우뚝 서리라.

나머지 이야기!

상구에게 우리가(나와 상구 사이를 두고 말한 것임)

평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물어 보았더니 "음- 그런 내가 잘 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에 잠시 감동하고 있었는데 덧붙이는 말이 가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시가 곤장을 무한대 맞고 권총을 버리면서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전쟁을 그만둬야 평화가 오지" 그래! 너 말이 참말 맞다. 새해엔 제발 상구와 엄마에게 평화가! 너 말대로 인류의 평화가 함께 하길 기대해보자 모두 행복하시고 복 많이 나누세요. ____.

🎙 만나고 싶은 사람 - 새내기 인사

서울지부 김미정신입회원을 만나보았습니다.

정리 · 임정수 조직간사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가라! 새내기 인사를 부탁받고 글쓰기에 자신이 없다고 고사하시는 김미정 선생님, 그러나 서울지부 열혈 신입회원을 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인터넷을 활용 1문 1답을 했습니다. ^^

임정수 보육교사회 활동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는지? 누구의 소개로?

김미정 안경자선생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구요... 8월 여름수련회부터인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임정수 보육교사회가 앞으로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 3가지

김미정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여러 선생님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구요

제가 보육교사회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임정수 보육교사회의 여러 활동(교육, 정책, 소모임, 등등)중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김미정 여러 활동들을 아직은 접해보지를 못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그래도 선택하시라면 교육이나 소모임 활동에 관심이 가네요.

임정수 서울 지부 신입 지부장(이경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김미정 대나무 같다는 느낌을 가끔 받아요, 그래서 외롭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년 한 해동안 외롭거나 지치지 않도록 미약하나마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건강하시고 목이 쉬 쉬지 않도록 기도할게요.

임정수 다른 회원들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말?
 김미정 나이는 서른을 훌쩍 넘었는데도 낮가림은 여전히...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 속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있네요.
 은연중에 저를 간간하게 보셨거나 새침태기로 보셨다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
 니 다. 그리고 아직도 자만하고픈 마음이 강한지라 가끔은 잘난척도 무지무지
 할거 예요. 저도 느끼고 반성하고 있으니 이쁘게 보아만 주서요.
 하루하루 변하는 것만큼 자만도 사라지겠죠?! 나에 관해서

임정수 나의 어린이집 이름, 원훈 및 자랑 3가지?
 김미정 - 동근나라어린이집
 - 원훈(우리 원은 ????)
 -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 풍성한 먹거리
 - 제가 있어 자랑이죠!

임정수 나의 별명 및 좌우명은?
 김미정 - 심통이, 곰탱이, 공주병
 - 쉽없이 감사하라

임정수 2003년 잘한일 best 3?
 김미정 - 동근나라에서의 생활
 - 발도르프 교육
 - 보육교사회

임정수 2004년 원하는 소원 3가지?
 김미정 - 건강
 - 동근나라 모든 식구들 늘 행복하길...
 - 우리 가족의 건강과 화목

임정수 나에 대한 자랑 3가지?
 김미정 별로 없는데요...

임정수 나를 색으로 표현하면 어떤 색일 제일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김미정 보라색요... 얼핏보면 촌스럽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깊은 늙 갈아서요...
 참 매력적인 색이라고 어릴때부터 생각했거든요...

임정수 교사로 제일 보람되었을 때?
 김미정 우리 친구들이 해맑은 얼굴로 웃을 때마다...

임정수 교사로 제일 슬펐을 때?
 김미정 머무르기를 고집할 때(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키가 자라듯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교사로서 충족해
 주지 못 할 때 가장 슬픔니다)

임정수 나의 교육관?
 김미정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친구하기

임정수 로또가 당첨되어 10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김미정 100억이라?!
 우선 목에 힘 팍 주고 살아야 겠네요...
 농담이고요...
 심일조.. 감사헌금.. 그리고 울엄마 드리고...
 울형부와 울오라버니 사업자금으로 주고...
 언니와 동생에게 주고... 조카들 용돈 조금 주고...
 동근나라 짝~ 고치고...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보육교사회에도 후원금 드리고...
 남는 돈이 있다면 한턱 내고...
 선물도 돌리고...

김미정 선생님 회원 활동이 핏수로 막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낮가림이 심하시다고는 하지
 만 서울지부 모임에서 늘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낮가림 극복이 끝나신 것 같네요. 올해부터
 는 적극적 활동으로 한국보육교사회의 자랑이 되어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임정숙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유효순 · 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원

그림 하나.

아마 84년 봄이 아닌가 싶다.

비가 뿌러지는 화수동 골목길, 흙탕물이 여기저기 고여 있고 진흙으로 질척거리는 길 밑바닥에는 바닷물이 스며 있을 것이었다.

그런 곳은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민들레어린이선교원으로,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는 진료, 각종모임과 예배를(일꾼교회) 보는 곳으로 사용되었던 도시산업선교회 앞에 결혼식을 마친 신부 임정숙이 도착했다. 큰 비너에 잠자리 날개 같은 치맛자락 끝을 들어올리며 음습하기 조차한(80년대에 와보신 분들은 그곳이 얼마나 올썸년스러운지 아시리라) 기류를 가르며 들어서는 그 여자를 보고 구경꾼들은 방금 임정숙이 떨구고 간 치맛자락 부뎀같은 목소리로 수군 거렸을 것이었다..

"어머, 재가 쓰레기장인 난지도 에서 어린이궁전인가 나래궁 인가 했었던 여자 란 말야?"

그랬다. 달력에서나 볼 수 있었던 쪽머리 비너 꽃은 미녀를 처음 본 나는 그 아름다움에 눈이 찢릴 지경이었다. 아니다. 노처녀였던 나는 심술이 났을 것이었다.

그림 둘.

그해 가을이었을 것이다.

민들레 자모, 민들레를 졸업한 자모들의 모임인 친목회, 의료조합원, 동네사람들과 야유회를 가는 길에 검문을 받게되었다. 버스안으로 올라선 헌병이 경직된 동작으로 경례를 불이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훑어 본 후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다. 일꾼교회에 다니는 이유로 형사들의 감시 대상이 되고 여차하면 감옥으로 끌려가는 시절이라 차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여기 있어요. 제 것을 가져가세요."

임정숙이 단호하게 일어섰다.

그렇다. 임정숙은 화려하고 단호했다.

1979년 사당3동 가마니촌 에서 관자집 방한칸으로 시작한 어린이를 위한 열정은 82년 사당동이 철거하게 되자 난지도 쓰레기장으로 현장을 선택하고 "어린이궁전, 나래궁"을 세웠다. 사시사철 파리와 악취, 쥐가 극성을 부리는 곳에서 밤늦게까지

청소차를 뒤쫓아 쓰레기와 씨름하는 부모들의 아이들을 씻기고, 허기를 메워주고,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백방으로 다니며 후원조적을 하는 일에도 절대 게을름 수 없었을 것이었다.

89년에는 공동육아 형태인 비영리 영아탁아방 "새싹들의 방"을 열어 운영했고 91년, 부모가 일 나간 사이 불이 나서 질식사한 세쌍둥이 사건이 인천에서 있었을 때 "세쌍둥이 어린이집 건립추진위원회"를 이끌어 활동하다가 7개월 후 "세쌍둥이 어린이집"을 열 수 있었다.

지금 그 여자 임정숙은 강화도에서 살고 있다.

96년 귀농하면서 고민하던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자람"을 실천하기 위해 2년여에 걸쳐 흙벽돌을 쌓아 흙벽돌집을 지었다. 그리고 금년 5월 "24시간 흙벽돌생태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그곳에서 유기농으로 지은 곡식과 채소를 먹으며 자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또하나의 자연이다.

늘어나는 한 부모 가정과 도시의 아이들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가자

"아이들은 영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자연 속에서 지내야해요. 이곳 토착 주민의 아이들을 보면 정서도 안정되어 있고 아토피 피부를 가진 아이들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사하거나 귀농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생계문제도 있고 부부가 합심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가난한 부모들은 더욱 어렵다. 그래서 24시간을 운영하는 "흙벽돌 생태어린이집"에 박수를 보낸다. 아니, 그 여자의 화려한 열정과 추진력 있는 단호함에 박수를 보낸다.

숙원사업이 이루어진 임정숙 그 여자는 "거울 앞에 앉은 누이"의 모습으로 내게 말했다.

"이제 이사를 안 다녀도 되는 터를 잡았으니 평생 여기서 이렇게 아이들과 살 겁니다"

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 03년11월 호에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 이명숙님이 만나본 분은 유효순에서 유효순으로 정정합니다.

궁중음식(?)과 차와 요가

전경숙 · 경기지부

이것이 뭐냐 하며는 11월 경기지부 회원의날 주제였어요.

웬 궁중음식(?)

요즘 장금이 워낙 인기인지라 궁중음식이 대 인기라는데, 시대에 부응하고자 시늉을...

들어나 봤나 궁중 김치볶음밥이라고.

실제로는 김치에 콩나물과 오징어를 더해서 해보았는데 맛이 어땠는지...

궁중음식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먼 곳에서 오신 부천선생님들의 입맛에 맞았는지...

점심에 오징어 넣은 김치전을 드시고 오신 양숙생은 체해서 본론에 들어갔을 때는 이불 쓰고 누워서 계시고...

내가 만들어놓고 나는 별루여서 어찌나 미안하던지...

저녁식사가 별루여서 본론인 차에 기대를 많이 했었다

한 해 동안 아이들과 해왔던 차를 일목요연하게 스케치북에 사진과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차의 정의나 차를 올바르게 마시는 법, 차의 효능에 이어 아이들과 함께 활동했던 사진과 응용작업까지도 참으로 알차게도 준비하였다.

학기 초 차 마시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무슨 활동을 할 수있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참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개인적으로 전통문양의 컵 받침이 마음에 들던데...

참 차도 마셨는데...

백두산에서 가져 왔다고 해서 백산차라고 했던가?

맛이 참 좋던데...

촛불 켜고 마시니 분위기도 너무 좋았구...

차와 잘 어울리는 운동이 요가라 하여 얼마 배우지는 않아서 몸은 뻣뻣하지만, 아이들이 하면 좋은 자세 몇 가지만 짧은 시간동안 교사들과 해보았다.

요가에서 가장 중요시여기는 것은 호흡과 명상인데, 아이들과 어수선한(?)분위기에 서 지내는 교사가 단 몇 분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고 약간 어스름하게 하고는 조용히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마음에 안정과 평화가 오지 않을까?

낮잠 전에 단 10분이라도 시행해 봤으면 하는 좋을 것 같다.

어린이 요가는 너무 어려운 동작을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동물모양, 자연모양을 형상화해서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을 해보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만한 동작을 많이 말고 한 가지라도 계속해서 하며 좋을듯하다.

요가이야기는 더 많이 수행해서 잘하면 다시 쓰기로 하고, 차 마시기와 요가로 11월 회원주제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그날은 신입회원이 경기지부에 3명이나 들어와서 축하시간도 잠깐 가졌는데, 사실은 길고 뻣적지근하게 하려했는데 시간관계상 짧게, 선물과 꽃다발 증정으로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순식간에 진행되어서 아쉬움은 남지만 꼭 해주고 싶은 일이 있다면,

총회생, 수련생, 리라생

경기지부에 들어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 이후에 경기지부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시간도 늦었고,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서 지부장님의 설명으로 끝을 내고, 오랜만에 생활 나눔을 했는데, 교진생의 갑작스런 결혼발표가 단언 화제의 중심이었다.

늦게 끝나서 어두운 밤길 잘 들어 가셨는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갈 길에 멀어서 끝내고 나와서 아쉽다.

언제 또 밤새고 이야기 해 볼거나...



하늘공원 아이 좋아라.

(보육교사 119 cafe 오프라인모임)

글 | 이보경 · 서울지부 회원

그림 | 박성희 · 서울지부 회원

어제까지 찬 바람이 많이 불어 걱정하였는데, 햇빛이 따뜻하게 비춰 아주 좋았습니다. 하늘공원까지 지하철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갔는데, 역새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역새들 사이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 부분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나무관을 칸 좁은 길들이 있어 어느 정도 역새 사이로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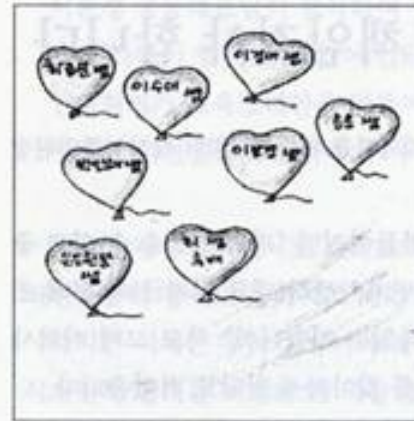
꽃이 피는 봄에서 가을 사이에도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엔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내려올 때는 계단으로 내려왔답니다. 계단이 무지 많아 보여 내려오면서 계단 수를 세어보니 292개의 계단이더라고요. 그래도 경사와 완만하여 걸을만하니 기회가 되어 하늘공원으로 가시는 분들은 한 번 걸어보세요.

내려온 후엔 모두들 버스를 타고 인사동으로 가 맛있는 된장비빔밥도 먹고 선물증정(100번째 글 쓰신 은은한 달님과 200번째 글 쓰신 뼈지미님, 300번째 글 쓰신 최다정님이 당첨되신 것인데, 은은한 달님만 참석하신 관계로 그분께만 선물증정이 있었습니다.)과 즐거운 담화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날 너무나도 파란 하늘을 다른 생들과 달리 압적하게 보았습니다.



그 하늘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선생님들 모두 마음과 마음에 하늘을 담고 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담은 여러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 마음을 보면 아이들의 표정은 이렇게 되어요 or 됩니다.

광주의 아이들 광주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박말신 · 광주지부 회원, 광주시보육조례제정을 위한연대회의 상임집행위원장

1995년 지자체가 막 시행되었을 시기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좋다고 하더라"라고 해서 의욕만 앞세우고 이지역 주민자치센터(대표 김재균)와 함께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이런데 통과될수 있습니까" 하고 그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자문역할을 하시는 박주현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도 하였습니다.

지역에서 공청회도 하고 시청에 공무원들을 만났는데

보육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육은 기관위임사항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조례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구나"하고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지가 부족했고, 우리의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접었던 그 상황이 지금 생각하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더욱 분발하여서 만들었다면 광주의 보육상황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을 것을...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2003년 광주보육교사회에서는 광주지역보육조례를 만들어보고자 손발을 걸어 부쳤습니다.

지난 4월부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공동사업으로 타지역 보육조례도 검토하고 광주시민 보육요구도 조사하여 광주광역시 보육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더 보태고자 광주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를 모아 연대회의를 11월 25일 4시에 결성했습니다.

광주 우체국 앞 길거리에서 있었지만, 날씨도 따뜻하고 시민들도 많아서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연대회의참가단체들에서, 성의껏 참석해 주셨고, 거기에 힘입어선지 시작을 알리는 서구화정EQ어린이집 아이들의 풍물소리는 신명났습니다.

앰프소리가 적어서 좀 말썽이었지만, 분위기를 압도하며 힘차게 식을 밀고 나갔습니다.

참가하신 분들도 모두 열심히 서명에 동참해주셨고, 준비한 전단지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힘찬 첫걸음으로 연대회의는 내년 2004년 3월 조례통과를 목적으로 시민 연대단체 내부 공청을 12월 18일 갖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님이 참석하여 주셔서 더욱 값진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 없어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연대회의가 보육조례안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에게 도움의 말씀 주셔서 감사하구요.

지금은 광주지역에서도 보육조례를 만드는 것은 가능성이 더 많아진것 같습니다. 시의원분들의 참여도 높아지고 내가 만들겠다는 분도 있구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넣어야 하는 조례내용의 수위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시의원들과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만 연대회의 힘을 더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보육조례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우리의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보육조례제정운동을 위하여 파이팅 !!!



새 밑에서...

이경미 · 인천지부 회원

한해에 끝자락에 서면 항상 잘한 일보다, 좋았던 일보다, 잘못되고, 안 좋았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지... 그래도 내년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또 추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나 봅니다.

우리지부가 올해 이렇다할 큰 성과는 남기지 못했지만 회원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음에 감사하고 내년에는 힘 받아 잘 해 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지부는 2003년 마지막 회원의 날을 12월 13일 토요일에 치뤘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서 의미 있고 재미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정책위에서 정리한 2004년 보육사업 안내 가운데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배, 시정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 시간, 종사자 배치기준, 경력 증명서 발급, 종사자 경력 인정, 경력 인정 개선, 휴가 외유형, 승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교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내용 그리고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한 내용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짜여진 내용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육 교사가 보육의 질,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 육아의 사회화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며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어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시작했습니다.

인천지부 역사상 처음으로 2단 케익에 촛불을 붙이고 뜨겁게 노래 두어 곡 부른 후 힘차게 촛불을 켜습니다. 회원 모두 가슴에 하나 가득 희망을 담아 큰 숨을 내뿜었을 것입니다. 인천지부 회원 여러분 Fighting!

오랜만에 추억의 물링 페이퍼를 돌리며 회원들 간에 따뜻한 정도 나누었습니다. 그 어떤 카드보다도 동료들의 짙막한 한마디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여운 오래도록 간직하시고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빠질 수 없는 그 무엇? 맞습니다. 우리는 뜨건 국물에 그 무엇을 마시며 오붓한 시간으로 올해 마지막 회원의 날을 마쳤습니다.

회원 여러분 내년에도 부디 건강하십시오. 우리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

일상의 즐거움, 감동 그리고 깨달음의 시간

김진숙 · 서울지부 지부장

2003년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본연수를 다녀왔어요.

2주 동안 연수를 하면서 일본의 보육제도, 보육환경, 교사복지, 보육활동 등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알고 왔으나 이런 이야기 말고 재미있고, 감동받고, 서글췌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연수 첫날.

연수하는 시설의 소개를 받고 3시쯤 연수하는 반으로 갔어요. 낮잠 자고 일어나는 아이들이 호기심과 경계의 눈빛으로 맞이하네요. 여기서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서 얼마나 웃었던지... 일본어를 몰라 일어난 일이지요.

한 선생님이 아직도 자고 있는 아이를 가리키며 일어나라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젠끼 오하요"라고 하라고. 그래서 '젠끼 오하요'라며 깨웠지요. 살살 흔들어도 보고... 안 일어 나길래 옆에 있는 애도 흔들며 '젠끼 오하요'라고 하고... 그러면서 '일어나라' 하는 말이구나 하며 수첩에 적기도 했지요.

며칠 지나 알게 된 사실. 젠끼는 자고 있던 아이의 이름이었지요. 오하요는 안녕 이란 인사말이구요. 이걸 알게 된 후 옆에 애 깨우며 작게 말한 게 얼마나 다행이다 싶은지... 일본어를 모르는 저에게 선생님들이 정말 세세히 신경써주었어요. 선생님들 이름을 일본어와 한글로 써주고, 아이들 이름도 일본어와 한글로 써주고 생일과 그림(아이들 개별 스티커)도 알려줬어요. 빨래감이 나오거나 옷 갈아 입힐 때면 누군지는 알아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몰랐는데 그림으로 찾으니 시간은 걸려도 혼자할 수 있고, 이름도 한번 더 보니 빨리 외워지고...

낮잠 재우고나면 30분 휴식시간이 있는데 항상 선생님 한분이 같이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생님 중에 한명이 한국어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선생님들이 한국어 회화책을 하나씩 들고 다니며 저한테 한글로 물어보곤 했습니다. 꼭 한국어 선생님이 된 듯...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가 가만히 있는걸 보지 못하더라구요. 놀이감 꺼내고는 '이거 가

지고 아이들과 노세요', 바깥에서도 모래놀이 하는 데로 오라고 해서 '같이 노세요', 그렇습니다. 연수내내 우유 흘러서 걸레 갖다 닦은 거 말고는 청소한번 안하고 아이들하고 정말 많이 놀았어요.

연수 넷째 날.

아침에 아이들이 오면서 과일을 하나씩 가져오더니 그 과일을 언제 모았는지 다 모아서 사랑반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야채 봤냐고 하면서 데리고 가서 보여주더라고요.

감사제 기간이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곳이라고... 그 과일과 야채를 근처 병원에 갖다 줄거라네요. 다음날 5·7세 아이들은 병원에, 1, 2세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께 아이들의 그림으로 만든 선물과 함께 드렸어요.

마당에서 놀다가 모든 아이들이 사랑반에 모였어요. 인형극을 한다네요. 재미있어요. 처음엔 말을 못 알아들으니 동작만 보고, 노래만 듣고 했는데 그래도 재미있더라고요. 인형이 특이해서 웃겼지요. 인형 얼굴은 선생님이 분장한 얼굴이고, 몸과 팔다리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팔은 움직일 수 있게 했어요. 분장을 하더라도 선생님 얼굴이 보이니까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작년에 서울로 연수왔던 키야마 선생님과 다찌마사 선생님도 출연했지요. 아는 얼굴이 나오니 좋더라고요. 좀더 보니 우리도 잘 아는 '커다란 무'였어요.

인형극을 언제 준비했나 싶더라고요. 휴식시간에도 보면 뭘 그리 하는 거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 할 때 보면 일사분란하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짜증도 놀랐다고 하네요.

저는 2층에 있다가 내려간 거여서 준비하는 거 못 봤는데 인형극 준비를 착 착 착 준비를 하더라고요... 막 치는 거 같더니 어느새 아이들 앉을 자리를 만들고, 아이들이 모이고, 별다른 의사소통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행사를 하거나 하면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주 잘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할건지도 미리 미리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휴식시간에 연간계획안이랑, 월 계획을 받았는데 월 계획안에 보니까 감사제때 줄 선물 기획안도 적혀져 있더라고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월안은 매달 첫주 월요일에 나온다는데 그때 이미 한 달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 지나 봐요. 미리 계획되어지니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2세 반은 반이 두개라도 같은 계획안이었어요. 그러면서 교사들의 역할 나눔도 짜임새 있게 되어져 있고.

전체 모였을 때 노래를 하거나 이야기 나누면서 쓰는 자료는 거의 만든 거였어요. 동물 그림, 야채 그림들도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봉투도 만든 봉투, 교사들의 정성이 안들어

간 게 없더라고요.

연수 셋째 날.

처음으로 숙소에서 밥을 해먹었습니다. 된장찌개... 7시 30분에 저녁을 먹기로 했으나 구수한 냄새를 도저히 못 찾고 6시가 조금 넘어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찌나 맛있던지... 가지고 온 밀반찬들도 너무 맛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무리 맛이 있다고 하나 역시 입맛에 딱 맞는 건 한국음식이네요. 밥 먹기 시작하자 아무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사시간... 다들 알죠? 밥먹는 데만 집중하는 거...

먹는 거 얘기하니 연수 끝나갈 때쯤 있었던 정말 맛있는 밥 이야기.

환송회 하기 전날, 숙소에 가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찌나 서글프던지...ㅠㅠ 이날은 어린이집별로 회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거든요. 우리만 그냥 왔나봐 했는데 먼저 온 선생님들은 왔다가 쇼핑하러 가고 나가다 한팀을 만나서 같이 가고... 먹을 것도 없어서 있는 밥 비벼먹자 하고 있는데 네 명이 들어왔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서로 우리만 들어 온지 알았다며 서로서로 위로하고... 함께 하다 뗏이 빠져도 그게 서운하고 허전하고 하네요. 2주일이 공으로 지나 간게 아닌가봐요.

있는 반찬 모두 꺼내 고추장으로 맛있게 비벼 먹었어요. 제일 맛있는 저녁이었답니다. 먹으면서 '맛어! 이맛이야! 했다니까요. 김치를 매일 먹지만 뭔가 그래도 빠진게 있는 듯했는데, 그게 바로 고추장으로 비빔 맛이더라고요. 진정한 한국 요리를 먹은 것 같았지요...

제가 연수한 보육시설은 보육목표가 '인간을 소중히 한다, 자신을 소중히 한다, 폭넓은 친구 사귀기를 지향한다' 예요.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보육을 하고 있고, 혼합연령 보육, 통합보육, 자유활동, 민족보육, 부모자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육공간을 충분히 넓게 확보하고 있고, 마음껏 놀 수 있는 마당이 있고, 장애 아동도 함께 생활하고,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며 부모들을 등하원하며 만나고... 혼합연령보육을 하게 된 계기가 장애아동을 돌보게 되면서 라고 하더군요. 아이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이런 보육철학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밀반침되고 있지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운영이 어렵다면 일정 포기하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지만 보육시설기준에 일정 정도의 바깥놀이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 민간도 보조금이 나오고,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으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자신의 보육내용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실천하고 필요한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관찰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놓은 결과겠지요. 이번 한국 아이들과 제가 연수한 시설이 일본에서도 특수한 시설이라고 하더라구요. 학습중심의 보육을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특수가 보편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시설들이 알려지면서 보육내용이 확산되겠지요. 아동중심의 보육이 한국에서도 정착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반성도 되구요.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에 맞게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어린이집이 해야 할 과제이고, 교사들의 몫이겠지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도 어른의 몫일 테구요. 이번 일본연수를 통해 보육철학과 내용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갖는 것,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의 중요함을 느꼈어요.

어떤가요?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일본연수 잘 다녀왔지요?



한일보육교사교류의 밤에서 한국과 일본 보육교사들의 즐거운 한때.
한일보육교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일본의 김혜영선생님모습(가운데)

그날! 그 자리의 열기를 기획하다.

이강선주 · 사무국장

누군가 그러더군요.

연초에 겨울수련회 및 총회에 참석하고 나면 그 힘으로 일년을 산다고.
그 자리가 바로 2004년 1월10일 부천 복사골 연수원에서 힘차게 열립니다.

그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수련회 준비팀이 모였습니다.

2003년 수련회, 그 밤. 온 지부를 돌며 신입회원으로 전한 신고식을 치룬 이수미, 최종문, 임정수 그리고 인천지부의 강나라, 그리고 인천지부의 이현주와 이경녀 전사무국장이 수련회준비팀에 함께 하였습니다.

수련회 준비팀은 2004년 수련회를
처음 참석해도 십년간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수련회!
십년을 참석했어도 처음 만나는 것 같은 수련회를 만들
고자 합니다.

두 번에 걸친 긴 회의를 통해 광란의 수련회의 실체가 들
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입회원들의 재치와 아이디어로
신선하게 채워질 수련회.
그러나! 기밀이 누설되어 맥이 빠지면 안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날 그 자리에서 몸으로 느껴세요.



2004년수련회준비팀으로
수고하시는 회원들

알립니다.

하나, 나눔 장터를 준비했습니다.
나에겐 소용이 다했으나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세요.
누군가에게 보내는 정겨운 말한마디를 적은 쪽지라도 한 장 끼워준다면 더욱 행복해지
겠지요? 따뜻함을 나눕시다.
두울, 꿈을 꺾는 사진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과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세상을 읽으려고

이선미 · 정책위원

세상을 읽으려고 신문을 보니 2003년 연말은 온통 이라크 파병과 정치자금과 특검, 이주 노동자 등 역시나 복잡하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로 가득합니다. 아침마다 쓱쓱 훑어 보며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외면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며 아이들과 지내는 어른의 모습이 이중적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수많은 논의에 국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인권'이 평범한 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을 읽게 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부안 핵폐기장 건설을 보며 자연과 화해하고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오만함을 읽습니다. 같은 노동자인데 남의 나라에서 왔다고 비정규직이라고 박대하고 내쫓는 우리들의 비굴한 모습도 보입니다. 로또 복권도 아닌데 터지면 백 억대가 넘는 대선 자금은 밀 빠진 독처럼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려고 한다며 단식을 하던 최 대표를 보며 그 나라가 내가 사는 나라와 동일한 것인지 의문시되고, 언제쯤이면 신문에서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단식하는 당대표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당치도 않는 공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 말미에 어수선하게 머리에 드는 수많은 생각은 이미 한 개인의 사고를 넘어 서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외면하면 혼자서 막 달려가는 세상이 늘 제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있음도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태양의 빛을 받는 내가 만드는 그림자 같습니다.

작년 새만금 삼보일배단이 생각납니다. 종교를 넘어 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잔잔히 퍼지던 사람들의 울림이 들립니다. 그 울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도 그 울림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의 희망을 전하고 보육교사의 진정한 자리를 전하고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처 난 이라크와 함께 하며, 총선을 치르며,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곳에서, 우리의 울림을 찾고 전해야 하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해 한 이등병이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며 복귀를 거부하고 평화를 외치다 자신을 가두는 군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군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도리를 가지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의 울림이 잔잔히 퍼짐을 알게 됩니다.

2004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편리로 똑 같은 시간의 구별일 뿐 세상은 하루 전과 같습니다. 이라크 파병과 평화, 특검과 총선 등 계속되는 정치권의 일정은 세상의 흐름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을 다시 갖고 옷매무새를 고칠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행복한 지금을 만들고자 하는 보육현장의 우리에게 더욱 더 그 공간이 중요한 한 해입니다.

세상을 읽는 것은 어렵고도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정치를 하며 단식을 하는 사람이 나를 구하기 위해 하는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특히 보육을 얘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박한 보육에 대한 소망은 무중력의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와 사회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세상을 그대로 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곳에서 내가 세상과 숨쉬고 세상이 나와 숨쉬는 것이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바랍니다. 서로를 외면하지 말고, 바라보고 스며들어 울림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상담실 Q&A - '근로계약'

이 코너는 한국보육교사회로 들어온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보육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 자기 권리는 스스로 찾으십시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실을 이용해주세요.



Q 안녕하세요? 저는 0월에 00학원에 입사하였습니다. 보육 교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원장님이 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원장님이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되 방향 간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2. 교사의 월 보수는 다음과 같다.
 - 가. 교사의 월급은 60만원으로 하되 6개월간은 월 10만원씩 공제 후 통장에 보관하였다가 퇴직 시 지급한다.
 - 나. 근무기간 1년씩 경과 시 마다 월보수는 10만원씩 인상한다.
 - 다. 보수지급일은 매월3일로 한다.

지금 제가 가장 힘든 것은 10만원 공제 후 50만원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두고 싶은데 아직 6개월이 되려면 2달이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생각은 이번에 재통진치가 있어서 그것만 끝내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30일이 재통진치구요 30일이 방학입니다. 방학기간이 6일이니까 그 동안 교사를 구하라고 하면 인될까요?

계약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면 적립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적립한 금액은 원래 선생님의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에서 공제된 것이고 별도의 용도지정이나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니라 퇴직 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그만두시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원장님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제 불임금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다 지키지 않아서 그 학원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학원에서 선생님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을 증명해야 될 의무는 학원 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런 예도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근로기준법 제 17조)

★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2조)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

사용자(고용주, 원장)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명시(주지)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가능하면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서 한 부를 반드시 가지도록 하세요.

★ 근로계약은 평등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또한 계약 당시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고용주가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이는 무효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식의 근로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그러나, 고용주의 경우 :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하고(미리 얘기해야 함)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한달 이상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일했다면 처음 계약기간만큼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그 기간 중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해고예고 제외되는 경우 : 사용기간이 2개월이내이거나 6개월미만의 월급노동자

2004년, 보육운동의 새로운 전진 희망찬 원년을 만들자!!

2003년 뜻깊고 보람찬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다가오는 새해 2004년을 더욱 힘차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한분 한분 빠짐 없이 손에 손을 잡고 참석하여 보육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다시금 결의를 모으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2004년 제 8차 한국보육교사회 총회 및 겨울수련회》

1. 일시 2004년 1월 10일(토) 오후 5:30부터 11일(일) 12:30까지
2. 장소 경기도 부천 복사골 연수원(2003년 총회 장소와 동일)
3. 준비물 나눔장터에서 교환 할 물건 1개 이상, 개인 세면도구
4. 회비 25,000원
5. 참가신청 각 지부, 지부가 없는 지역의 회원은 중앙사무실
6. 전화번호 02)2275-8505(중앙사무실), 016-603-6116(사무국장), 018-356-8581(조직간사)
7. 기타 총회장소가 아동이 활동하기에 편하지 않은 관계로 가급적 아동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동반(육아도우미는 24개월 이상만 보육)



[우리네아이들]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올해부터는 우리네 아이들의 질적 고양을 위해 모니터를 열심히 받고자 합니다. 대상은 한국보육교사회 정회원 일반회원 자료회원입니다. 격월간 발간되는 [우리네아이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발전적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니터 요원은 04년 1년동안 활동하시게 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02-2275-8505 (담당자 김휘경)

CMS출금 일자 변경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회비와 후원회비를 CMS로 출금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매월 26일자로 출금되었으나 2003년 12월부터 매월 29일로 출금일이 변경되었습니다.

㉠ 미아예방 방문교육

주최	미아예방 방문교육
대상	경인지역 보육시설 5-7세 사이 아동
내용	실제적 교구를 통한 미아발생 전/후 대처법, 유괴예방 대처법
시간	약 35분
일정	12월 화, 수, 금(접수기간: 교육 1주 전)
비용	무료
장소	신청한 각 어린이집으로 방문
제출서류	교육 신청서 (신청요강 내 신청서 활용)
신청방법	fax(02-756-4256) e-mail(mia at kwf.or.kr)
문의처	02-777-0182 (월-금 8:30-17:00) 미아예방교육 담당자 •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을 참조해 주세요. (www.lovechild.or.kr / www.missingchild.or.kr)
주최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 유아멀티미디어 종사자 컴퓨터 연수

일시	2004년 1월 14일(수), 15일(목), 16일(금) 오후 2시 - 4시
장소	관악구청 전산교육장 1층
대상	구립/민간/가정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관련학과 학생 신학순 30명
내용	- 유아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시디롬을 활용한 컴퓨터 교육 - 컴퓨터 프로그램을 교수매체로 활용 (과워포인트, 포토샵) -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 만들기를 함
교육비	회 원 - 25,000원, 비회원 - 35,000원 농 협 170118-51-006184 (예금주: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참가신청	1월 10일(토)까지 전화 및 E-mail 신청

㉠ 편해문의 옛 아이들 놀이·노래·이야기 특강

강사	편해문(옛 아이들 놀이노래이야기 연구소장)
기간	2003년 2월9일(월) - 2월 13일(금)
시간	10:00-13:00 5회 200,000원
정원	15명
강좌내용	1. 몸과 춤과 장단으로 만나는 놀이 2. 말놀이와 수수께끼로 만나는 놀이 3. 재미있는 놀잇감으로 만나는 놀이 4. 옛 아이들 노래로 만나는 놀이 5. 옛 이야기로 만나는 놀이
접수방법	1. 전화: 3272-7575, 3272-8234 2. 한겨레문화센터 홈페이지: http://www.hani.co.kr/section-redirect/hanter21_up.html

㉠ 유아, 어린이 국악지도사 자격3급 취득 교육 연수

시간	2004-01-05 오후 2:00:00 ~ 2004-01-08 오후 1:00:00 까지
장소	유태평양국악체험캠프
내용	국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국악 강습과 실제, 교과서 중심 국악 실기(관소리, 사물놀이, 민요, 전래동요, 단소 등)
대상	전국 각 대학 유아교육, 아동 보육학, 사회복지학과등 타전공과 재학생, 졸업예정자, 졸업생도 가능 현직교사 - 유치(어린이집)교사, 초등학교 • 본 교육 이수(20시간)시 수료증 수여와 신청자에 한하여 교육 검증 후 유아, 어린이 국악 지도사 자격증(3급)을 수여함 [사단법인 세종전통예술진흥회]
참가비	75000원 (교육비, 강사료, 시설 사용료 등 포함) (숙박은 무료입니다)
식비	27000원 (9식×3000원)
입금계좌	제일은행 725 - 20 - 323691 유 준 일
문의 사항	전화: 041-567-8660 담당자: 011-9604-1874
접수	우편접수 주소: 충남 천안시 북면 남안리 88번지 유태평양 국악체험캠프 FAX: 041-567-8663(당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문의	김성주 011-9604-1874

🕒 세시풍속과 만나는 신나는 연극놀이

강좌기간 1차 2004년 1월 5일-10일(6일간)
2차 2004년 1월 12일-17일(6일간)

문의 02-502-1137 (해마루)

• 자세한 안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www.ntok.go.kr)

🕒 신비한 마술여행

주제 신비한 마술여행
일시 2004. 1. 31 - 2004. 2. 1
주최 극단예인
장소 대전 한밭도서관 대강당
시간 12:00, 14:00, 16:00(1일 3회 공연)
내용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극단공연이다.
문의전화 02-927-9920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농촌 지역 사회 활력유지 및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기간 2004년 1월 ~ 22일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기준) 농지소유면적 1ha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기구의 농어업인의 영유아(0-5세)
-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의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의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단, 5세아는 100%)하여 매월 지급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국공립·사립유치원 취원아의 교육비 지원액의 50% 수준 지급(단, 5세아는 입학금과 131,000원/월 범위내)
- 제외대상(중복지원금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에 대한 보육료 또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따라 신청

문의처 - 농림부 :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실(☎02-500-1605-6)
- 도 : 농정국 농정과(☎043-220-3725)
- 시·군·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농정업무담당부서

🕒 중앙소식 (11월-12월20일까지)

- ◆ 11월 4일 청와대 정책실 인구·고령화대책팀 주최로 진행된 인구·고령화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보육현장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영역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 ◆ 11월 6일 교통방송에서 이윤경 공동대표가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에 따라 기대되는 부분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 ◆ 11월 7일 청와대 정책실 인구·고령화대책팀 주최로 진행된 인구대책팀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 11월 8일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 11월 10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여성부 정책1담당사무관과 만나 국회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 11월 11일 여성부장관과 본회 임원진(공동대표, 각 지부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회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여성부가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고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 ◆ 11월 11일 2004년 총회를 위한 첫 총회준비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총회준비위원회는 이윤경(공동대표) 김명선(공동대표, 부산지부장) 박은아(인천지부장) 최미라(광주전남지부장) 지연(경기지부장)윤문주(대구지부장) 김진숙(서울지부장)님이 참여하십니다.
- ◆ 11월 11일 2004년 총회에서 있을 공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으로 박미영(광주회원), 오윤정(서울회원), 류신정(인천회원),

김진숙(서울지부장) 김순아(부산회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김진숙 서울지부장님이 선출되었습니다.

- ◆ 11월 14일 여연에서 주최한 16대 여성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 11월 14일 정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 11월 15일 한일보육교류연수로 일본에 다녀오신 우리회 회원들의 일본연수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될 한일보육교류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 ◆ 11월 19일 지부교육사업담당자 채팅회의가 있었습니다.
- ◆ 11월 20일 여연에서 주최한 지역여성운동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지역보육조례제정운동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 11월 20일 돌봄을 주제로 한 현장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 ◆ 11월 22일 2004년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 ◆ 11월 24일 04년도 보육사업안내개정의견제출을 위한 정책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 11월 25일 한국여성개발원과 서울여대여성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보호노동의 사회화,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 11월 27일 보육단체연대회의가 서울시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사무실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참석단체들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

- 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 11월 28일 여성영화인모임에서 주최한 '영화인 양육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 11월 29일 조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4년 우리 회의 사업방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 12월 4일 YMCA 어린이영상연구회에서 주최한 좋은 어린이프로그램평가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 12월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진행된 한국여성재단 4주년 기념행사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 12월 5일 2004년 겨울 수련회 준비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준비팀으로는 이경녀, 최종문, 이수미, 강나라, 이현주 회원이 활동하시고 중앙의 임정수조직간사와 이강선주사 무국장이 함께 합니다.
- ◆ 12월 6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인준제 모형개발을 위한 전체평가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연구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 12월 6일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 12월 9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월간 신문인 '에듀케어 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 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보육정책에 대한 우리 회의 방향과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 ◆ 12월 13일 04년도 사업계획마련을 위한 정책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 12월 13일 우리 회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송년의 날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선배님들과 함께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정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 ◆ 12월 15일 집행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4년 사업계획 가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 12월 17일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에서 여성단체활동이 새로운 전망이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되어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 12월 18일 광주보육조례제정을 위한 연대단체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 12월 18일 2004년 총회를 준비하며 회계감사가 있었습니다. 회계감사로 이명숙선배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 ◆ 12월 19일 서울시 보육위원회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보육위원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위탁선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 12월 20일 2004년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4년 한국보육교사회 사업방향과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지부소식

경기지부

- ◆ 11월 29일 평동어린이집에서 회의날이 있었습니다. 이교진샘의 전통차에 대한 강의와 함께 전경숙샘의 어린이와 함께 하는 요가 강의를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회간 교류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경기지부 노망들이 요즘 힘들어합니다. 오랜 세월 보육을 위해 헌신하신 샘들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민이 이만 지만 아니십니다. 용기내시고 2004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분발하셔서 경기지부의 영원한 대들보가 되어 주십시오.

- ◆ 12월 27일 수원 평동어린이집에서 2003년 경기지부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새로운 변신을 위한 서약(?)들도 해주시고 지난 2003년의 노고도 치하하시는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 ◆ 보육조례 제1차 공청회를 하였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여성민우회에서 광주시 여러 단체들이나 관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민노당 윤난실의원을 모시고 조례에 대해 알아보고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 11월 15일 양성평등 이야기한마당을 하였습니다. 광주시 지원사업 마지막 행사였습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봉순 수석강사님을 모시고 양성평등 가족관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변화되어가는 시대의 양상속에서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보육조례연대회의 발족식 및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4시 광주우체국 앞 길거리에서 있었지만, 날씨도 따뜻하고 시민들도 많아서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연대회의 참가단체들에서, 성의껏 참석해 주셨고, 거기에 힘입어 선지 시작을 알리는 서구화정EQ 어린이집 아이들의 풍물소리는 신명났습니다. 앵프소리가 적어서 좀 말쑥이었지만, 분위기를 압도하며 힘차게 식을 밀고 나갔습니다. 참가하신 분들도 모두 열심으로 서명에 동참해주셨고, 준비한 전단지도 푼티나게 팔렸습니다.
- ◆ 12월 5일, 6일 2003년 평가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모든 회원들이 총준위가 되어서 사업방향 및 부서사업 평가도 해보았습니다. 올해 광

- 주전남보육교사회가 힘차게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 보육조례제정 제2차 공청회를 하였습니다. 12월 18일 보육조례제정 공청회가 여성의 전화 2층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 없어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연대회의가 보육조례안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의회 윤난실의원님, 김용익의원님, 이윤경 공동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저희에게 도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 송년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25일 오후 4시~7시까지 도담도담어린이집에서 있습니다. 이번 송년 잔치는 알게 모르게 열에서 든든한 지원을 해주셨던 후원회원 여러분과 회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재미나고 알찬 내용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 ◆ 서울지부
 - ◆ 11월 26일 : 11월 월모임이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모임으로 서울지부가 1년 동안 함께 고민했던 새로운 조직 건설에 대한 것들을 총정리하는 복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한 회원들도 많이 참석하여 1년의 흐름을 공유하는 알찬 시간이었네요.
 - ◆ 11월 29일 : 총회 준비를 위한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사업을 검토하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총회가 되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지요. 올해 마지막 운영위원회이기도 했습니다.
 - ◆ 11월 30일 : 홍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해를 평가하고 새로운 홍보부의 활동과 구성원을 정하는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홍보부의 중요한 활동인 소식지 발간과 인터넷 카페 운영에 대한 대외홍보면에서의 긍정적인 평가

는 홍보부를 더욱 힘있게 해주었지요. 내년도 홍보부를 대표해 이보경 선생님이 한 해 더 수고하기로 결의하며 서로의 수고를 자축한 시간이었습니다.

◆ 12월 6일 : 근로기준법 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보육사업 지침을 비교 연구하는 공부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연구한 내용을 회원들과 함께 어떻게 나눌 것인가, 외부 보육교사들의 의식향상을 위해 모임원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 12월 5일 : 서울지부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2003년 서울지부의 활동들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새로운 해의 계획을 회원들의 권리로 세워가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보육현장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교사의 힘으로 교사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자던 2003년의 활동목표가 충실히 수행되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2004년을 앞두고 훌륭한 일꾼들을 선출하는 시간에는 서울지부 사상 처음으로 경선투표가 치루어져 선거가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치열한 접전을 펼쳐 이경녀 선생님이 서울지부의 새로운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사무국장에는 동반 출마한 김숙자 선생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서울지부 회원들의 애정 어린 지지를 받으며 서울지부를 대표하게 된 두 선생님과 함께 활기찬 서울지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참, 몇 년 동안 서울지부를 위해 애써온 김진숙 선생님을 아쉬운 마음으로 평회원으로 강등(?)시킬 때에는 모두 서운한 마음이었다네요. 또 한해 동안 수고한 이상옥 사무국장과 운영위원장들에게도 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이 전

달되었구요.

그리고 이날 총회에서 차기 집행부장들도 모두 인사를 하였는데... 이보경 선생님이 홍보부장으로, 이성봉 선생님이 교육부장으로, 김미나 선생님이 조직부장으로 수고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내년을 위해 풀 일꾼들도 결의를 내고... 정말 기대가 되는 서울지부입니다.

◆ 12월 25일 : 서울지부 송년회가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이경녀 지부장님 집에서 와인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새로운 분위기의 송년회입니다.

◆ 12월 30일 : 차기년도 일꾼들의 첫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2004년도 활동계획을 미리 생각해보고 일꾼들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인천지부

◆ 11/11 한국 보육교사회 임원진들과 여성부장관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는 박은아 지부장이 참석했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예산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11/15 회원의 날 영유아 보육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 준비를 했고 회원들의 밀린(?)생일 잔치를 한꺼번에 치렀습니다.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죠. 인천지부 총회준비위가 꾸려져 준비가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해는 모든회원의 '총준위' 화로 사업계획팀, 예산팀, 회칙개정팀으로 나뉘어져 준비하고를 있습니다. 지부총회는 2004년 1/31입니다.

◆ 12/6 '보육시설 장학제 및 인증제'에 관한 토론회에 박은아 이순 이상미 김원희 선생님이 참석 하였습니다. 보육교사회 인천지부 의견은 찬성하는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표명하

였습니다.

◆ 12/13 지부 회원날 있었습니다. 많은 회원이 모여 영유아 보육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가지고 토의했고요, 더불어 회의를 마치고 송년회를 치루면서 선물도 받고, 회원들끼리 물렁 페이퍼도 돌리면서 따뜻한 한해를 마무리했답니다. 물론 마지막엔 카--- 전하게 한잔!!!

부산지부

◆ 11월 15일 조직논의를 위해 확대간부연석회의를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사무실 이전에 관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 11월 21일 보육조례관련하여 시보사환경위원회와 간담회를 하여 보육조례제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 12월 5일 녹색도시만들기 프로젝트사업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12월 27일 부산지부 송년회가 있습니다.

대구지부

◆ 대구 한사랑 어린이집 개원식이 11월8일(토)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명예교사와 후원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겠다고 합니다.

◆ 대구지부 홍미숙 선생님이 9월17일 출산을 하시고 12월 1일 복직하셨습니다. 복직후 자녀관계로 아쉽게도 자녀관계로 재 휴직에 들어갔다가 2월에 복직하신다고 합니다.

♡ 사람과사람들

왕창결혼합니다.

◆ 부천의 귀염둥이 이교진 샘이 드디어 날을 잡았습니다. 2004년 5월에 결혼을 합니다. 경기지부팀에 밀리는 못하고 용인으로 시집갑니다. 결혼 후에도 꼭 경기지부와 함께 할 것입니다.

◆ 광주지부 이승희님(12월 21일)과 김진희님(12월 25일)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 겨울에 내리는 눈만큼이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12월28일 인천지부 류지민 선생님이 행복한 결혼식을 합니다. 류지민샘 앞날에 알콩달콩한 재미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 대구지부 윤문주 선생님이 27일 대구 지에스프라자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평등한가족, 평등한 부부란 기초아래 여성주체와 여성사회로 진행합니다.

◆ 부산지부! 정은아(튼튼이 어린이집)샘과 정현옥(전 진구지회 /전 생생어린이집/현재 공주교대 편입수학 중)샘이 결혼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결혼식날이 1월11일 한국보육교사회 총회와 겹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12월27일 김주리(일반회원/전 고신대어린이집/현 부산대아동주거학과 대학원과정)샘이 결혼하십니다. 김주리샘은 결혼 후 창원에서 새살림을 하신답니다. 참 좋은 본인 데 보육교사회와 인연이 끊기지 않고 오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 광주지부 김수중 선생님께서 11월 28일, 광주지부 최혜영 선생님께서 12월 3일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들을 출산하셨습니다. 부산지부 코끼리 박희순 회원이 12월 6일 둘째딸을 출산했습니다. 이 땅의 건강한 미래를 선사하신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귀하십니다.

◆부친의 동그라미 원장이신 박부자샘이 복귀 하셨습니다. 귀여운 민서의 백일도 얼마전에 지났습니다. 복귀도 축하드리고 민서의 백일 도 지났지만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경기지부에 신입회원이 들어왔습니다. 수원의 이종화 샘과 김수연 샘입니다. 환영합 니다. 경기지부 뿐 아니라 한국보육교사회의 기동으로 자리매김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지부 김은규 선생님이 교사회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사회 를 알고 지내셨다는데 이제야(?) 우리회의 식 구가 되어서인지 항상 알고 지내온 것처럼 반 감고 푸근합니다. 은규 선생님! 너무 너무 환 영합니다 !!

◆서울지부 박성화 선생님도 교사회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미 서울지부 인터넷 카 페에서 '난 인어공주!'로 유명한 선생님이었 는데 드디어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호탕한 선 생님이 에너지가 교사회에 널리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

그리고 또...

◆서울지부 김숙자 선생님이 1월 중순경부터 한달 동안 꿈에 그리던 인도 일주에 오릅니다. 다른 회원들의 부러움을 사며 겨울 인도 일주 에 오르는 숙자 선생님! 뭔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부산지부 물리 김영수 회원이 구서동으로 이 사했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일자리도 알아보 고 있습니다. 김양희 회원도 이사했습니다.

◆우리 회 교육위원이신 남명자선생님께서 과 천에 새집을 짓고 이사하셨습니다. 새집에서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길 기원합니다.

회비를 내셨습니다

(2003년11월1일-12월20일까지 입금분입니다.)

〈자료회비〉

노화경, 최은유, 무태어린이집, 부산직장보육시 설지원센터, 이정님, 최영신, 열매어린이집

〈지부회비〉

cms 지부회비 서울, 경기, 인천, 광주전남, 대 구지부 완납. 부산지부김미옥(부산지부) 한송이, 김미나 (서울지부미남회비) 민성희, 김은규(서 울지부)

〈중앙회비〉

서은희, 조선경, 하미선, 김지희, 노수산, 최루 미, 신선주, 조선영, 김은숙, 김지혜, 김명미, 김 애경, 최선희, 김실이.

〈평생회비〉

유정은 7.8회차.

〈후원해주셨습니다〉

원명순 1만원, 김종원 3만원, 장성일 1만원, 류 호선 5만원, 백선희 1만원, 오영숙 1만원, 김은 주5천원, 신주영 5천원, 김정운 1만원, 김경인 1 만원, 한만우 1만원, 김현순 1만원, 권성춘 2만 원, 김진명 5천원, 박차리 5천원, 이현경 2만원, 남명자 2만원, 김동현 1만원, 이지수 1만원, 하 운하1만원, 신현미 1만원, 박선희 1만원, 오선영 3만원, 이희경 2만원, 오윤정 1만원, 박은아 3만 원, 김현빈 2만원, 김희경 5만원, 이정님 2만원, 황미혜 10만원, 이기원 32만원.

모든 분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인사 전합니다.

✎ 편집후기

03년 한해동안 우리네아이들 편집부일을 담당해주신 황 미혜 선생님이 04년 부터는 쉬십니다. 재충전 많이 하시 고 will back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부터 사무국에서 함께 의견을 모아서 우리네 아이 들을 발간하고 편집부에 김휘경 정보간사가 자료들을 모 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네아이들이 찍금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몇 가지 꼭지들을 조정하였고, 아이들과 환경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한번쯤 되돌아보자는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아이들과의 하루로 쓰여진 꼭지는 보육교사일 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한 글들을 모 아 아이들과의 하루라는 큰 제목을 묶었습니다.

현장교육은 보육활동으로 바꾸고 보육활동 안에 현장교 육과 그림책소개, 그리고 보육활동의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내기로 합니다.

03년11월호에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 이명숙님이 만나 본 분은 유효순님이었습니다. 유효순님으로 이름이 잘 못나갔네요. 저영말 죄송합니다. 유효순님으로 바로잡 습니다.

이번 호 현장교육은 쉽니다. 연말연시 바쁜 와중에 원 고섭외하기 정말 힘드네요. 다음호부터는 보육현장의 활발한 교육 활동이 가득 담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 니다.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분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 kdta@chollian.net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